



이종근(삼육대)

1. 서론

잠언은 토라와 느비임의 교훈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고 유럽이라는 세 패권 문명의 완충지대(buffer zone)의 고대 이스라엘이 처한 지난한 삶의 자리(Sitz im Leben)에서의 일상적 적용을 위한 원리를 정리한 것으로 히브리 신앙의 바탕이 된다.¹⁾ 잠언의 주요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의 교훈이며, 이에 대한 답론은 모든 시

* 본고는 제98차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서울신학대학교 100주년기념관: 2015. 4. 17. 13:00-19:30)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Jacques B. Doukhan, *Proverbs* (Nampa, Idaho: Pacific Press, 2014), 8; 왕대일, "지혜전승. 지혜정신. 지혜신학. 성서신학을 향한 이정표: 서론", 안근조, 「히브리 지혜전승의 변천과 기독교의 기원」(서울: 동연, 2016), 3; cf. 김광률, "실천적 지혜를 탐구하는 잠언 교수", 「신학논단」62(2010, 12), 57-79; 이원일, "실천신학적 접근에서의 실천적 지혜", 「신학논단」73(2013, 9), 259-286.

대에 걸쳐 화두가 되어왔다. 특히 어떤 전대미문의 불확실성, 무력감, 그리고 절망과 불안 및 허무에 씨름하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도 이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²⁾ 지혜는 오늘날에는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고대인들에게는 살아있는 실체로 보였다. 일반적으로 חכמה(호크마/지혜)는 삶의 현상을 성찰하고, 그것에 내재하는 조화와 질서를 발견하며,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경험적 과정이다. 지혜문학에서 지혜는 인간적 상황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체득되는 것으로 본다.³⁾

지혜는 초기 유대교의 집회서(Ecclesiasticus, c. 185 BC)에서 언급되고 있다. 지혜는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분께서 창조하신 만상 위에 부으셨다(Sir 1:1,9-10).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자 뿌리이며(Sir 1:20), 그것은 하늘 거처를 떠나 시온에 거하며 토라 안에서 발견되고 동일시되었다(Sir 24:3-23). 바룩서(Baruch)에서도 지혜는 토라와 같이 여겼으며(Bar 4:1-4), 솔로몬의 지혜서(Wisdom of Solomon)에서는 지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힘차게 움직이며 만물을 잘 다스린다고 했다(Wis 8:1).

신약의 저자들은 잠언 8장의 지혜를 의인화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신위[神位]/ 신격체[神格體]/hypostasis/godhead)로 보았다(고전 1:24,30; 딤후 3:15). 니케아 이전 교부들(Ante-Nicene Fathers)인 저스틴 마터(Justin Martyr), 아테나고라스(Athenagoras), 터툴리아누스(Tertullianus),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Origenes) 등은 대체적으로 잠언 8장의 지혜를 삼위 하나님

2) 이용호, "이스라엘 지혜문학과 그 영향 -구약성서 안에 이스라엘인 민족, 그들만의 고유한 지혜가 있는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5권 (2015), 47-68.

3) 지혜문학에는 욘기, 잠언, 전도서, 그리고 외경의 지혜서(Wisdom of Solomon)와 집회서(Ecclesiasticus, Wisdom of Ben Sira)가 있다. 노만 K. 갓월드, 『히브리 성서 2: 사회, 문학적 연구』, 김성기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255; 김성진, "잠언의 지혜(חכמה): 지혜의 문예적, 해석학적 기능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5권 (2011), 63-82.

중 제2위격의 성자로 이해했다. 4세기 이후 기독교론 논쟁에서 가이사라의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300-373 AD)는 성자의 지위를 성부와 동격으로 영원한 존재의 동일본질(homoousios)로 보았지만, 325년의 니케아 회의(Council of Nicea)는 성자가 성부와 본질은 비슷하나(homoiousios) 동일하지는 않다는 아리우스(Arius)의 성자 종속론(anomoios/heteroousios, subordinationism)을 거부했다. 이후 18-19세기까지 기독교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지혜를 그리스도로 해석했다.⁴⁾

20세기 이후에는 다양한 방법의 역사비평적 연구가 시도되었다.⁵⁾

-
- 4) 교부들에 대한 자료 참고: Alexander Roberts, and James Donaldson, *The Ante-Nicene Fathers*, vol. 5. (W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7); Lewis Ayres, "Athanasius' Initial Defense of the Term homoousios: Rereading the De Decretis," *Journal of Early Christian Studies* 12.3 (2004): 337-359; David M. Gwynn, "From Iconoclasm to Arianism: the Construction of Christian Tradition in the Iconoclast Controversy," *Greek, Roman, and Byzantine Studies* 47.2 (2007): 225-251; Richard Davidson, "Proverbs 8 and the Place of Christ in the Trinity," *ATS* 17/1 (Spring 2006), 33-37; Ralph Marcus, "On Biblical Hypostasis of Wisdom," *Hebrew Union College Annual* 23, No 1 (1950-1951), 157-171; Eric May, "The Logos in the Old Testament," *CBQ* 8, No 4 (1946), 438-447; Alexander A. Di Lella, "Wisdom of Ben-Sira," *ABD*, VI:931-945; C. F. Keil and F. Delitzsch, *Keil-Delitzs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76), 6:230-234.
- 5) 잠언 각 단위와 장로(잠 1-9장)에 대한 역사비평적 연구는 먼저 델리취(F. Delitzsch), 와이브레이(R. N. Whybray), 스캇(R. B. Y. Scott) 및 맥케인(W. McKane) 등의 연구가 있고, 둘째, 의인화된 지혜의 종교사적 연구는 링그렌(Helmer Ringgren)을 필두로 카야츠(C. Kayatz), 랭(B. Lang)이 주변 문화와 이스라엘의 지혜전승의 관계를 다루었다. 셋째, 신문화비평적 읽기는 알레티(J. N. Aletti), 해리스(S. L. Harris), 및 팸버트(G. D. Pemberton) 등이 잠언의 다양한 문학적 전승사적 기원과 구조를 분석하여 본문 이해를 시도했다. 넷째, 사회학적 배경 연구로는 퍼듀(L. G. Perdue)의 성전학교 전승이나 델(K. J. Dell)의 서기관 가족학교(scribal families)의 모델을 따른 잠언의 구성을 보는 연구가 있다. 다섯째, 개념적 읽기로는 하벨(N. C. Habel)의 핵심개념으로서 양극의 길(*derek*) 중심으로, 반 류웬(Van Leeuwen)의 경계의 개념, 요더(C. R. Yoder)의 지혜육과 성육 중심의 읽기가 있다. 여섯째는 팍스(Michael V. Fox)의 지혜와 신앙의 통합적 읽기 등의 방법론이 제기되었다. 안근조, "지혜문학 연구의 제방법론: 잠언 1-9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8권 1호 (통권 43집) (2012, 3. 31), 34-59; Ronald E. Murphy, "Wisdom in the OT," *ABD*, VI:920-931; idem, "Hebrew Wisdom," *JAOS* 101, 1 (1980), 21-34; Gerhard von Rad, *Wisdom in Israel* (London: SCM Press, 1973), 146-148; Michael V. Fox, "Ideas of Wisdom in Proverbs 1-9," *JBL* 116.4 (1997): 613-633; James L. Crenshaw, *Old Testament Wisdom: an Introducti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0); Helmer Ringgren, *Word and Wisdom: Studies in the Hypostatization of Divine Qualities and Functions in the Ancient Near East* (Lund: H. Ohlssons Booktr, 1947).

본고에서 다룰 잠언 8장의 지혜의 신격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대별하여 세 방향의 연구방법론이 제기된다. 첫째, 지혜는 고대근동의 지혜 여신의 잔영(Herman Gunkel, William F. Albright, W. L. Knox 등); 둘째, 고대근동의 신화적 요소가 배제된 시적 의인화(poetic personification)(Gerhard von Rad, Bernhard Lang 등); 그리고 셋째, 지혜는 의인화를 넘어 하나님 곁의 창조협력자(Helmer Ringgren, Ralph Marcus)로 보는 견해 등의 방법론이 있다.⁶⁾ 신위란 인간 개인을 인격(人格)/ 인격체(人格體)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신성의 활동하는 신격(神格)을 이르는 말이다.⁷⁾

본 연구는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선학들의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고바빌로니아 제국(Old Babylonian Empire, c. 1894-1595 BC)의 제6대 왕인 함무라비(Hammurabi)에 의해 편찬된 함무라비 법(Laws of Hammurabi, c. 1792-1750 BC)의 천상회의(天上會議, 이하 함무라비 천상회의)⁸⁾와 잠언 8장의 천상회의(이하 잠언 천상회의)의 연관성을 신학적으로 비교하고, 잠언 천상회의의 주체이자 지혜의 신격체인 창조협력자에 대한 해석영향사적

6) Ralph Marcus, "On Biblical Hypostasis of Wisdom," 157-171; Eric May, "The Logos in the Old Testament," 438-447; R. B. Y. Scott, "Wisdom in Creation: The 'āmôn of Proverbs VIII 30," *Vetus Testamentum*, vol. 10, Fasc. 2 (Apr., 1960), 213-223; B. Lang, "Wisdom," in *Dictionary of Deities and Demons in the Bible*, eds. Karel van der Toorn, Bob Becking, Pieter W. van der Horst, 2nd ed. (Leiden: Brill, 1999), 900-905.

7) 천사무엘, 「지혜전승과 지혜문학: 지혜문학의 눈으로 다시 본 성서」(서울: 동연, 2009), 129, 201.

8) 함무라비 법과 성서에 나타난 천상회의 및 함무라비 법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종근, 「함무라비 법과 성서에 나타난 천상회의」, 『서양고대사연구』 41 (2015), 61-100; 한상수, 「함무라비 법전: 인류 법문화의 원형」(서울: 인제대학교출판부, 2008), 85-263; Judith Laurel Jacobson, *The Divine Council in the Hebrew Bible in Light of the Ancient Near East*. Diss. University of Georgia, 1997; Marc Van de Mieroop, *King Hammurabi of Babylon: a Biography* (Malden, 2005); Martha T. Roth, *Law Collections from Mesopotamian and Asia Minor*, SBL Writings from the Ancient World, vol. 6, ed. Simon B. Parker et al ed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1997), 71-149; Russ Versteeg, *Law in Ancient World* (Durham, 2002), 189-286; Bruce Wells, "Law and Practice" in *A Companion to the Ancient Near East*, ed. Daniel C. Snell: Blackwell Companions to the Ancient World (Malden, 1988), 209-211 등.

(Nachwirkungsgeschichte) 시각의 연구이다. 천상회의/신들의 회의 (*puḫur ilāni*, divine council/divine assembly/assembly of gods)란 고대근동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영계(靈界)의 신들이 자신들과 인간사의 주요 사건들을 하늘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협치(協治)를 말한다.⁹⁾

연구범위는 고대근동과 인류 범문화의 원류(源流)¹⁰⁾라고 여겨지는 함무라비 천상회의와 인류 정신문화의 토대인 성서의 잠언 8장 22-36 절의 지혜 관련 천상회의의 주요 이슈들이다. 연구제한은 종교개혁의 유산에 기반을 둔 최종형태의 전체성서(*tota scriptura*) 및 성경의 유비(類比, *analogia scripturae*) 시각에서 살펴본다.¹¹⁾ 성서 본문은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것은 개역성서를 따른다.

-
- 9) 본고에서 다루는 잠언의 창조 모티프와 비교 대상으로 삼는 주제는 메소포타미아 문헌들 중 창조서사시킨 「에누마 엘리쉬」가 아니다. 「에누마 엘리쉬」에서는 마르둑이 패배시킨 티아맛의 시체를 둘로 찢겨 천지를 창조하고(Enu^ma Elish IV 137-140). 또한 킹구(Kingu)의 피로 인간을 창조하는(Enu^ma Elish VI 33) 등의 창조와 관련된 신들간의 투쟁과 유혈 모티프가 주류를 이루어 성서의 창조기사의 개념과는 너무 상이하 여 본고의 주제와는 비교하기에 부적합하다. 반면 함무라비 법이 메소포타미아 문헌들 중 최선의 자료이다. Jeremy Black and Anthony Green, *Gods, Demons and Symbols of Ancient Mesopotamia: An Illustrated Dictionary* (Austin, 1992), 36; Wesley I. Toews, "Divine Assembly," *ABD*, II:214-217; *ANET*, 67-68; *COS* 1, 111, 390-402; John H. Walton, *Ancient Israelite Literature in its Cultural Context*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 House, 1990), 25-30; Kenton L. Sparks, *Ancient Texts for the Study of the Hebrew Bible: A Guide to the Background Literature* (Peabody, MA: Hendrickson Pub, 2005), 314-315.
- 10) Raymond. Westbrook, "Biblical and Cuneiform Law Codes," *RB* 92 (1985), 247-264; Dominique Charpin, *Writing, Law, and Kingship in Old Babylonian Mesopotamia*, trans. Jane Marie Todd (Chicago/ London: Univ. of Chicago Press, 2010), 80-81; Ake W. Sjöberg, "The Old Babylonian Eduba," *Sumerological Studies* (1976): 159-179.
- 11) 전체성서는 신구약 모든 성서는 최종문서(final texts)로서 신구약 성서 전체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앙과 삶을 위한 최고의 권위이며, 성서를 전체적 통일성(dynamic whole)으로 보는 원칙이다. 성서의 유비는 성서의 조화로 성서는 근본적으로 정신과 원칙이 일치되며 각 부분들이 조화된다는 원칙이다. 이것들은 종교개혁의 유산의 일부이다. 종교개혁의 강령은 오직성경(*Sola scriptura*), 오직 은혜(*Sola fide*),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 오직 하나님의 영광(*Soli Deo gloria*) 등이다. V. E. D'Assonville, "Calvin as an Exegete of Scripture: a Few Remarks with Reference to Calvin Research in General," in *die Skriflig: A Festschrift from the Conventus of Reformational Churches in Southern Africa*: Supplementum 44 (2010): 129-143; Jerald D. Gort, "The Contours of the Reformed Understanding of Christian Mission: An Attempt at Delineation," *Calvin Theological Journal* 15 (1980): 47-60; Richard M. Davidson, "Interpreting Scripture According to Scripture," *Perspective Digest* 17, 2 (May 10, 2012), 조지 W. 리드 편, 「성경해석학」, 이종근 외 역 (서울: 삼육대학교 신학연구소, 2011), 5,13,47,72.

2. 함무라비 천상회의

서구문명의 요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메소포타미아에는 태곳적부터 전승되어지는 모티브 중에 천상회의가 있다. 이 세상과 우주의 중대 사건들에 대해 신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함무라비 법의 전문에 나타나는 천상회의는 수메르 법전승의 대미(大尾)로 나타난다.¹²⁾ 함무라비 천상회의는 메소포타미아 종교와 정신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신들 간의 협의체이다.

1) 수메르 법전승의 천상회의

함무라비 법의 전문(前文)은 그 법 이전의 천상회의 모티브를 심화, 발전시켰다. 수메르 시대(c. 2700-2330, 2112-2004 BC)의 법인 우루-이님기나 법(Laws of Uru-Inimgina, c. 2350 BC)을 필두로, 250여년 후의 우르-남무 법(Laws of Ur-Nammu, c. 2100 BC), 그리고 170여년 뒤의 리피트-이슈타르 법(Laws of Lipit-Ishtar, c. 1930 BC)에는 인류 문명의 맹아기부터 천상회의 개념이 진전된 면이 있다. 함무라비 천상회의는 수메르 시대의 다른 회의들보다 더 조직적이고 포괄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우선 그 명칭이 ‘하늘과 땅’¹³⁾의 신들을 모두 망라하는 집합체로 함무라비 법에서는 아눈나쿠(Anunnaku)와 이기구(Igigu)¹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우루-이님기나 법이나 우르-남

12) 이종근, “함무라비 법과 성서에 나타난 천상회의”, 61-100; cf. Roth, *Law Collections from Mesopotamia and Asia Minor*, 76-142.

13) 하늘과 땅, 그리고 지하는 성서에서 창조주의 권세를 나타내는데 여러 번 사용된다(출 20:4; 신 5:8; 사 51:6; 렘 31:37; 빌 2:10; 계 5:3,13).

14) 아눈나쿠/아눈나키는 신들의 협의체를 말한다. 이는 하늘과 땅 그리고 지하의 신들을 망라하는 용어로, 메소포타미아 문헌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만신전의 중요 신들의 협의체를 뜻하기도 한다. 반면 이기구는 아눈나쿠와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고, 「아트라하시스 서사시(Atrahasis Epic)」에서는 상위 계급의 신들인 아눈나쿠를 섬기는 젊은 신들의 협의체를 말한다. 이기구의 반역으로 인간들이 창조되었다. Gwendolyn Leick, *A Dictionary of Ancient Near Eastern Mythology* (NY: Routledge, 1998), 85-86; Black and Green, *Gods, Demons and Symbols of Ancient Mesopotamia*, 106.

무 법과 리피트-이쉬타르 법들에는 명칭에 대한 언급이 없다. 즉 개념이 미분화된 상태를 나타낸다. 주요 이슈인 천상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우루-이넘기나 법은 엔릴(Enlil)과 닌길수(Ningirsu), 우르-남무 법에는 아누/안(Anu/An)과 엔릴이 주요 참여자이자 결정권자이다. 아누와 엔릴은 후대 리피트-이쉬타르 법과 함무라비 법에서도 그대로 의사결정의 주체들로 드러난다. 신들의 신원에 대해서도 우루-이넘기나 법이나 우르-남무 법은 신들에 대해 아무 언급도 없지만, 리피트-이쉬타르 법은 아누와 엔릴이라는 양대 신들의 모습을 밝히는 명칭을 부여하지만 엔릴이 회의를 주도한다.¹⁵⁾ 함무라비 법은 이런 전승에서 두 신들의 정체성을 더욱 심화시킨다.

천상회의는 메소포타미아의 도시국가(city-states)의 수호신인 주신을 다룬다. 우루-이넘기나 법은 도시국가 라가시의 주신인 닌길수를 말하지만 우르-남무 법에서는 도시국가 우르의 주신이 난나이다. 리피트-이쉬타르 시대에는 도시국가 이신의 주신인 니니시나(Ninisina, 치료의 여신)가 주신이다. 이런 모습으로 마르둑 신이 도시국가 바벨론의 주신이자 수호신으로 함무라비 법에서 활동한다. 마르둑과 그의 지상대리자이자 바벨론의 왕은 천상회의에서 선임되었다. 이 천상회의의 결정인 각 법의 입법 목적이 개혁이나, 정의와 진리, 정의와 복리 그리고 우호적 왕권 등으로 말하여지고, 함무라비 법도 유사한 가치들 위에 편찬되었음을 선포한다. 수메르 법전승의 주요 개념 위에 함무라비 법이 세워졌음을 드러낸다. 이런 양상은 “정의”라는 말이 함무라비 법에서 무려 9회에 걸쳐 장황하게 언급되기도 한다. 이런 천상회의의 다양한 모습은 다음과 같다.¹⁶⁾

15) Gwendolyn Leick, *Historical Dictionary of Mesopotamia*, Historical Dictionaries of Ancient Civilizations and Historical Eras, No 26, 2nd ed. (Lanham, Toronto, Plymouth, UK: Scarecrow Press, Inc., 2019), 14, 60-61; Manfred Lurker, *The Routledge Dictionary of Gods and Goddesses, Devils and Demons* (NY: Routledge, 1987), 58.

16) 이종근, “함무라비 법과 성서에 나타난 천상회의”, 73-74.

| No | 내용 | 법 | | | |
|----|-------|-----------|----------|--|--|
| | | 우루-이남기나 법 | 우르-남무 법 | 리피트-이슈타르 법 | 함무라비 법 |
| 1 | 회의명칭 | 없음 | 없음 | 없음 | 아논나쿠, 이기구 |
| 2 | 참석 신들 | 엔릴, 닌길수 | 아누/안, 엔릴 | 신들의 아버지이자 위대한 아누/안, 모든 나라의 왕이며 운명을 결정하는 엔릴(누남니르) | 신들의 왕이신 존엄한 신 아누, 하늘과 땅의 주이시며 땅의 운명을 결정하는 엔릴 |
| 3 | 주신 | 닌길수 | 난나 | 니니시나 | 마르둑, 충실한 왕자, |
| 4 | 도시 | 라가시 | 우르 | 이신 | 바벨론 |
| 5 | 대리자/왕 | 우루-이남기나 | 우르-남무 | 리피트-이슈타르 | 함무라비 |
| 6 | 법의 목적 | 개혁 | 정의와 진리 | 정의, 복리, 우호적 왕권 | 법과 정의, 복리 |

함무라비 법은 천상회의라는 협의체가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에 기반을 둔 법치를 선언한다.¹⁷⁾ 이 회의는 천상의 신계(神界)인 만신전 (pantheon)과 지상의 최고 패권국가, 그리고 그 국가의 왕권을 관장하는 권력 질서를 규명한다.

2) 함무라비 천상회의

고대 메소포타미아 종교와 정신의 백미(白眉)이며 함무라비 법의 토대인 천상회의의 장엄한 광경을 살펴보자.

17) M. E. J. Richardson, *Hammurabi's Laws: Texts, Translation and Glossary* (NY: T & T Clark International, 2004); W. W. Davies, *The Codes of Hammurabi and Moses* (Berkeley, CA: The Apocryphile Press, 2006), 23-111.

(i 1–26) *īnu Anum šīrum šar Anunnakī Enlil bēl šamē u eršetim šāīm šīmāt*¹⁸⁾ *mātim ana Marduk mārīm rēštīm ša Ea illilūt kiššat nišī išīmušum in Igiḡī ušarbišu Bābīlam šumšu šīram ibbiu in kibrātim ušāterušu ina libbišu šarrūtam dārītam ša kīma šamē u eršetim išdāša šuršudā ukinnušum*

(i 27–49) *inūmišu Ḥammurabi rubām nādam pālih ilī jāti mīšaram*¹⁹⁾ *ina mātim ana šūpīm raggam u šēnam ana ḥluqim dannum enšam an la ḥabālim kīma Šamaš ana šalmāt qaqqadim wašēmma mātim nuwwurim Anum u Enlil ana šīr nišī ṭubbim šumī ibbū*²⁰⁾

아누나쿠 신들의 왕이신 존엄한 아누 신과, 하늘과 땅의 주이시며 땅의 운명들을 결정하는 엔릴 신이 모든 백성들에 대한 최고의 권세를 에아 신의 장자인 마르дук 신에게 할당하고 이기구 신들 사이에 그를 높였으며 바벨론 도시를 존엄한 이름으로 명명하고 세계의 지역들에서 그것을 최고로 만들고 바벨론 내에 그를 위하여 하늘과 땅에 걸맞은 영원한 왕권의 기초를 확립했다.

18) 운명(*šimāt* in Akkadian, Nam-tar in Sumerian)는 삶에서 “분리, 할당, 분복” 등의 의미가 있다. 존재나 실존에 대해 타의(他意)에 의해 부과된 숙명(宿命, fate, destiny/ Geschick)을 말한다. 함무라비 법에서 이 말은 결론(19,20,22), 법조문(12,162,163,167 등에서 20여회 이상 사용된다. Erica Reina et al eds, *The Chicago Assyrian Dictionary* (이하 CAD)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57–), 11: 247–249; 17:11–20; Wolfram von Soden, *Akkadisches Handwörterbuch*, 3 Bands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72), II: 729; M. E. J. Richardson, *Hammurabi’s Laws: Text, Translation and Glossary* (London, New York: T & T Clark International, 2000), 299.

19) 미사룸(*mišarum*)이란 수메르 시대부터 사회정의 제도로 주로 관료개혁, 세금개혁 및 노예해방 등을 수반했다. 함무라비 법에서는 전문에서 2회, 결론에서 8회 나올 정도로 함무라비를 미사룸과 연결시킨다. CAD, K:159–168; M:116–119; W. von. Soden, *Akkadisches Handwörterbuch* (Wiesbaden: Harrassowitz, 1965–1981), 254; R. Westbrook, “Mesopotamia: Old Babylonian Period,” R. Westbrook(ed.), *A History of Ancient Near Eastern Law*, vol. 1. (Leiden: Brill, 2003), 363–365. Richardson, *Hammurabi’s Laws: Texts*, 225

20) Roth, *Law Collections from Mesopotamian and Asia Minor*, 76.

그 당시 아누 신과 엔릴 신은 백성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나를 내 이름으로 지명하여 불렀다. 충실한 왕자인 함무라비는 신들을 경외하고 정의가 나라에서 넘치게 하였고 악한 자와 악을 없애고 힘센 자가 악한 자를 압제하지 못하게 하고 태양신 사마시를 모든 인류 위에 올려놓았고 그 땅을 밝히도록 했다”(함무라비 법[이하 LH 표기] 전문 i 1-26, 27-49).²¹⁾

함무라비 법의 전문은 대곶적부터 만상의 근간인 천상회의를 선언한다. 이 회의는 천상의 비가시적이고 초자연적 권세들로 하늘과 땅 그리고 지하의 모든 신들을 포괄하는 우주적 협의체(cosmic council)로 아누나쿠나 이기구라는 신들의 협의체를 포함한다. 이 회의는 바벨론이 치열한 도시국가 간의 정복이나 합병 등을 통해 패권 국가로 부상될 때 천상회의가 있어 왕권과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 회의는 보이지 않는 신들의 세계인 영계와 지상의 가시적 인간계가 하나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 삶이 신들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천상회의는 인간 운명에 대한 중대사를 다룬다.

천상의 영계(靈界)와 인간계 그리고 자연계가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된 모습은 성서에도 드러난다. 성서에서 원역사(primeval history)의 뱀의 유혹(창 3:1-12), 그리고 범죄 및 그로 인한 자연계의 쇠락(창 3:17-24) 등 영계와 현상계의 밀접한 관련성을 볼 수 있는 점에서도 유사성을 드러낸다.²²⁾ 이 천상회의는 성서의 태초(Urzeit)부터 종말(Endzeit)까지 창조 등 구원사의 주요 사건들의 이면에 내재된 모티브로 존재한다.²³⁾

이 회의가 메소포타미아의 중대 사건들을 최종 결정하는데, 예를 들

21) 이종근, 「메소포타미아 법의 도덕성과 종교」(서울: 삼육대학교출판부, 2011), 120를 전제함.

22) 원역사의 영적 주도권은 후대 전승에서 루스벨을 위시한 천사들의 우주 보좌에서의 반역과 추방, 그리고 세상을 미혹하는 것으로 드러난다(계 12:3-9).

23) 이종근, “함무라비 법과 성서에 나타난 천상회의”, 70-72.

어 「길가메시 서사시(Epic of Gilgamesh)」의 회의에서는 홍수를 보내어 인간을 멸망시키고,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에서도 인간 운명이 결정된다.²⁴⁾ 회의 장소는 수메르 시대에는 님푸르의 엔릴 신전, 또 유사 성격의 우가릿의 가나안에서는 엘의 거처에서 열렸다.²⁵⁾

고대근동의 법치의 토대인 함무라비 법은 당대 사회의 권력과 질서 등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이슈들에 대한 최선의 방책은 천상회의라는 집단 회의체임을 드러낸다. 그 회의는 천신(天神)인 아누 신이 주관했고, 또 다른 신인 엔릴이 주도적으로 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관의 역할을 했음을 나타낸다.

3) 협치의 과정

함무라비 천상회의는 협의체 형식의 과정을 보여준다. 회의 과정을 통한 협치의 모델로 그 회의는 그 성격과 목적 및 현세적 권력 구조에 대한 세 단계의 주요 결정 사항들을 드러낸다.²⁶⁾

첫째, 신계의 우주적 왕권을 특정 신/주신에게 위임하고 다스리게 했다. 즉 아누와 엔릴 신들이 모든 백성들에 대한 권세를 메소포타미아 만신전의 수많은 신들 중 유일하게 지혜와 마술의 신 에아의 아들 마르둑 신에게 위임했다. 둘째, 천상회의에서 도시국가 바벨론을 우주적 왕권

24) 조철수는 천상회의는 큰 50신들로 구성되고, 그들 중 일곱 상위 신들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했다. 일곱 신들(dingir-nam-tar-ra 7-bi): 아누/안, 엔릴, 님후르삭(Ninhursag, 모신), 엔키, 신(Sin), 우투, 이난나이다. 조철수, 「수메르 신화: 인류의 역사시대를 시작한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이야기」(파주: 서해문집, 2003), 38-39; Thorkild Jacobsen, "Primitive Democracy in Ancient Mesopotamia," in *Toward the Image of Tammuz*, ed. W. L. Mora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404; idem, *The Treasures of Darknes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6), 170,185-189; *ANET*, 69.

25) 바알의 거처인 북방 산(Mt. Zaphon)에서 신들의 회의와 연회가 있었다. Michael D. Coogan, *Stories from Ancient Canaan* (Louisville: Westminster Press, 1978), 93,120; Benjamin R. Foster, 「Epic of Creation/ Enuma Elish」, in *Context of Scripture*, 1:395-396; E. Theodore Mullen, *The Divine Council in Canaanite and Early Hebrew Literature* (Missoula, MT: Scholars Press, 1980), 128-135.

26) 이종근, 「함무라비 법과 성서에 나타난 천상회의」, 76-88.

을 위임받은 마르둑 신의 거처로 선정했다. 이것은 마르둑 신이 바벨론의 수호신이자 주신이며, 바벨론이 고대근동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패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이 천상회의는 천상의 주도권을 위임받은 마르둑의 인간 대리자로 특징인 함무라비를 왕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특징인은 천상회의에서 신들로부터 소명을 받고 주신의 지상 대리자로 선택되어 천상회의에서 그의 이름이 선포되고 왕권을 위임받았다.

가시적 세계의 권력 구조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질서가 현존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승은 성서에서도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는 만상의 연합과 유사한 모티브이다(엡 1:10, 21-26; 3:10).²⁷⁾ 또한 왕권은 신들의 의지의 표현으로 신들로부터 위임받았다는 후대 왕권신수설의 기초를 제공한다.²⁸⁾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최고 권력자인 왕은 마르둑의 대리자이지만, 이것이 이집트의 고대 독재 왕정에서는 인간 왕은 신이자 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현신/현인신(現人神)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 모티브는 고대 독재국가 시대 인간 문명의 업보로 신이 행한 모든 것은 잘못될 수 없고 반성이나 회개가 없는 초인간적 현상으로 정착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 강점기 천황제에 기반을 둔 일제의 헌법이나 제국정책은 한민족에게는 현재까지도 가혹한 고난의 그림자를 짊어 드리우고 있다.²⁹⁾

이 천상회의 결정으로 도시국가 바벨론은 함무라비의 도시로 지정된다. 이것은 고바벨로니아 제국 시대의 왕위선전(royal propaganda)으로 수세기 동안 백성들의 의식을 지배해 왔었다. 천상회의는 천상과 지상의 주도권을 부여받은 마르둑 신과 그의 도시인 바벨론의 패권, 그

27) 빌 2:10; 뱀전 3:22; 계 4:8-11; 5:8-12.

28) 이종근, "수메르 법전승과 성서의 왕권신수설",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2 (2014), 29-55.

29) 민경배, "교회사적 입장에서 본 한국교회 8.15 대성회의 신학적 의미", 『한국교회 8.15대성회 신학학술포럼, 명성교회 월드글로벌아센터』 (2010. 8. 12), 12-13.

리고 그 도시의 왕인 함무라비가 왕으로 군림하는 통치권에 대한 공적 인정과 정당성을 부여했다.³⁰⁾

함무라비 천상회의는 메소포타미아 만신전의 주요 두 신들인, 즉 신들의 왕이자 존엄한 칭호(appellation)인 아누와, 대기의 신이자 님푸르의 주신인 엔릴이 그 회의의 주체임을 밝힌다. 이 회의의 주체들인 두 신들 간에는 어떤 우열이나 관계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두 주신들 간에는 천상과 지상의 지엄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 및 협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함무라비 법의 전문과 결문에서 함무라비가 정복하고 다스린 20여 도시들과 40여 주신들 및 주요 신전들에 대한 그의 치적을 나열하는 데는 서열화 된 신들의 조직을 드러낸다.³¹⁾ 전문의 천상회의는 아누와 엔릴의 결정으로 인해 마르둑과 함무라비를 중심으로 혼돈과 무질서의 메소포타미아 상황에서 질서와 조화, 그리고 정의와 복지를 가져왔다는 결과를 드러낸다.

함무라비 왕의 초기에는 스스로 힘센 왕이 없이 10-15왕들이 바벨론의 함무라비, 남부 수메르 지역의 맹주(盟主)인 라르사의 립신, 에쉬눈나(Eshnunna, 메소포타미아와 현 이란 사이의 전략요충지)의 이발피엘, 시리아의 중앙지역 카트나(Qatna)의 아무트-피-엘, 그리고 시리아 북부지역의 야림-림 왕들을 각각 따를 정도로 제 세력의 각축장이었다.³²⁾ 함무라비는 근교원공(近郊遠攻)의 전략으로 메소포타미아를 통합했다. 먼저 북부 앗시리아의 샴시아다드가 함무라비와 손을 잡고 마리를 합병하여 북부를 장악했지만 갑작스런 죽음을 맞았다. 그 후

30) 왕권신수설에 관한 참고; 배철현, 「고대 메소포타미아의神王사상」, 『서양고대사연구』 24 (2009), 35-66; 이종근, 「수메르 법전승과 성서의 왕권신수설」, 29-55; Henry Frankfort, *Kingship and the God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Samuel Greengus, "Legal and Social Institutions of Ancient Near East," in *Civilizat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eds. Jack M. Sasson et al (NY: Charles Scribner's Sons, 1995), 470-471; Roth, "Mesopotamian Legal Traditions and the Laws of Hammurabi," 17.

31) 이종근, 「메소포타미아 법의 도덕성과 종교」, 176-178.

32) ANET, 628; Joan Oates, *Babylon* (London: Thames and Hudson, 1979; repr., 1988), 61.

함무라비는 남부의 라르사와 동맹으로 동쪽으로부터 공격해 왔던 엘람을 방어한 뒤 라르사를 정복했다. 오랜 원군이던 마리를 다시 통합하고 북부 지방을 정복했다. 이런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함무라비 천상회의는 다른 모든 것들, 심지어 함무라비 연대기³³⁾의 복잡다단한 사건들도 생략한 채 평화와 질서를 도출해내는 회의의 모습을 제시한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비록 천상회의에서 아누와 엔릴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이지만, 최종 주도권은 그 두 신들이 아니라 마르둑이며 인간 대리자로서의 함무라비가 제국을 통일했다는 사실이다.³⁴⁾

이러한 결정에 따라 함무라비 법에 나타나는 여러 신들과 신전들의 다종교 및 다문화가 최고신이자 수호신인 마르둑을 중심으로 조화롭게 배열되고 통합된 모습을 보여준다. 아누와 엔릴 신들이 지상의 왕권을 마르둑에게 할당했다는 것은 각 신들이 주신과 수호신으로 있는 도시국가들이 마르둑을 수호신으로 모시는 바벨론에 넘겨졌다는 뜻이다. 이 법에서 정의의 신 사마시가 나오는데 함무라비는 사마시의 뜻을 따라 법을 제정하고 널리 선포했다. 그는 바빌로니아 제국에 정의를 세웠고, 악과 억압을 제거했다고 했다(LH 전문 i 27-49; 결론 xlvi 1-8). 또한 바벨론에서 정의와 복지가 이루어졌다고 했다.³⁵⁾ 뒤이은 전문과 결

33) 이종근, 「메소포타미아 법의 도덕성과 종교」, 115-117.

34) 함무라비의 제국통일에 대해 카우프만(Kaufman)은 통합(consolidation)과 분화(fragmentation) 이론을 제시한다. 첫째, 무정부 상태에서 자강(self-help)으로 주변 국가들을 연합한 뒤, 경제적 이권 관계로 국가 통합을 확대한다. 그 뒤에는 정체성 혼란으로 분화가 촉진되지만 그것을 안정화시킬 사회적 기술이 요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국가가 분열된다. 반면 알카드리(Alkadry)는 법치, 규정, 상하 관계 확립, 전문관료, 공식 문서화, 공사 구분과 일반원칙 제시 등이 제국통일에 기여했다고 한다. 권력(Power), 행정(administration), 권위(authority), 관료(the official) 등 막스 웨버의 관료제 이론을 적용하여 함무라비의 통치는 현대관료제의 이상과 부합된다고 설명한다. Georges Dossin, "Les archivespistolaires du Palais de Mari," *Syria* 19 (1938), 117, quoted in William H. Stiebing, Jr., *Ancient Near Eastern History and Culture* (New York: Longman, 2003), 88; Stuart J. Kaufman, "The Fragmentation and Consolidation of International System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1, No 2 (Spring, 1997), 173-208; Mohamad G. Alkadry, "Bureaucracy: Weber's or Hammurabi's" Ideal or Ancient?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6, No. 3/4 (Fall, 2002-Winter, 2003), 317-345.

35) 함무라비의 왕위선전과 같은 거창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함무라비 법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분차별로 백성들은 자유민(*awilum*)과 평민(*muškenum*) 그리고 노예(*wardum*)로 차별하고(LH 196-204, 216-

문의 조항들에서도 여러 도시들과 신전들에 배푼 선정을 장황하게 나열한다. 그 모든 신들은 마르둑의 주도권 하의 다양하고도 평화로운 신들의 위계를 보여준다. 대 격동의 배경에서도 천상회의의 결정에 따른 법치와 협치를 통해 사회 조직의 안전과 복리를 가져왔다고 언급한다.

3. 잠언 천상회의

함무라비 천상회의가 아누와 엔릴 두 신들이 최대 이슈인 권력구도, 패권과 왕권을 다루었듯이 잠언 천상회의도 성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창조에 대해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infinite Creator)과 지혜로 의인화된(personified wisdom)³⁶⁾ 창조협력자(co-creator) 간의 활동을 언급한다.³⁷⁾ 잠언에서 지혜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단순한 지식뿐만 아니라 삶과 우주에 대한 직관과 성찰 및 신본주의적 인식을 드러낸다. 그것은 현세적이고 처세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리로서 “영원까지 이르”(시 19:9)는 예표성을 지닌다.³⁸⁾ 지혜의 근본은 잠언에서 창조에 기초하며³⁹⁾ 잠언 8장의 천상회의는 지혜의 의인화를 기초로 그것의 신격성과 선재성을 천명하며 영원한 광경을 열어 보인다.

223조[이하로 표기]; 둘째는 가혹한 형벌로 마술(LH2)과 거짓 증언(LH3), 심지어 신전이나 왕궁 재산의 도적질도 사형을 규정했다(LH6); 셋째는 여권 억압적인 성차별 조항 등이다(LH 108, 129, 132, 133b, 143...). 이종근, “함무라비 법의 도덕성”, 『법학논총』 23권 2호 (2011. 2. 28), 297-353; Nathan MacDonald, “Monotheism and Isaiah,” in *Interpreting Isaiah: Issues and Approaches*, eds. David G. Firth and H. G. M. Williamson (Downers Grove, Ill: IVP Academic/ Nottingham: Apollos, 2009), pp 43-61; Peter F. Gregory, “Its End Is Destruction: Babylon the Great in the Book of Revelation,” *Concordia Theological Quarterly* 73 No 2 (April, 2009), 137-153.

36) 안근조, 『히브리 지혜전승의 변천과 기독교의 기원』, 216.

37) *Andrews Study Bible*, 799-800, note 8:12-14; 8:27-31.

38) 신명은 아웨나 아웨 대신 개역성경의 여호와를 사용함.

39) 구원신학, 창조신학 및 지혜전승의 관계 이슈에 대한 논의 참고: 천사무엘, 『지혜전승과 지혜문학: 지혜문학의 눈으로 다시 본 성서』, 23-32; 안근조, 『히브리 지혜전승의 변천과 기독교의 기원』, (서울: 동연, 2016), 25-33; 노세영, “지혜문학에 나타난 창조신학”, 『신학사상』 85 (1994): 94-118; R. E. Murphy, “Wisdom and Creation,” *JBL* 104 (1985), 3-11.; Roger Norman Whybray, *The Book of Proverbs: a Survey of Modern Study* (Leiden: E. J. Brill, 1985).

1) 잠언의 지혜

잠언의 의인화된 여성 지혜/지혜부인(Lady Wisdom)는 다양하게 이해되어 왔다. 히브리어 지혜는 그리스어의 지혜인 소피아(sophia)나 라틴어의 사피엔티아(sapientia)처럼 여성형으로 표현된다. 지혜의 여성상은 가나안의 엘 신(William F. Albright), 메소포타미아의 여신 이쉬타르(Ishtar)(Ringgren), 이집트의 여신 마아트(Maat)(C. B. Kayatz, B. L. Mack)나 이시스(Isis)의 영향(E. A. Johnson)을 받았다는 주장도 있다.⁴⁰⁾ 솔로몬이 3000가지 잠언을 편집했고 스바 여왕이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방문했던 것이나(왕상 4:32; 10:1-13), 잠언 22장 17절-24장 22절의 30가지 잠언들이 대략 기원전 12세기의 이집트 아메네모페(Amenemope)의 지혜서와 유사한 것처럼,⁴¹⁾ 이스라엘의 지혜는 이방 문화와 일정 부분 유사성과 공감대가 있다. 고대근동에서 지혜는 신적 기원을 드러내지만, 히브리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면에서 독특하다(잠 1:7; 9:10).

잠언의 지혜는 초기 유대 역사의 여성 현자에 기초하고 그러한 이미지가 전쟁과 살인 방지 및 갈등과 분열의 치유 그리고 평화의 삶을 촉진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이해되기도 했다.⁴²⁾ 히브리의 여성 지혜는 음녀와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포로 후기에는 왕권과 예언의 붕괴로 인해 그것이 인격화되어 유대교 가정을 지킨 여인의 비유로 사용되기도 했

40) William F. Albright, "Canaanite-Phoenician Source of Hebrew Wisdom," in *Wisdom in Israel and in Acent Near East* (Leiden: Brill, 1960), 8-15; C. Bauer Kayatz, *Studium in Proverbien 1-9* (Neukirchen: Neukrichener, 1966), 5-10; Elizabeth A. Johnson, "Jesus, the Wisdom of God. A Biblical Basis for Non-Androcentric Christology," *Ephemerides Theologicae Lovanienses Gembloux* 61.4 (1985): 261-294.(1985), 268-269; John S. Kloppenborg, "Isis and Sophia in the Book of Wisdom," *Harvard Theological Review* 75.01 (1982): 57-84..

41) John Ruffle, "The Teaching of Amenemope and its Connection with the Book of Proverbs," *Tyndale Bulletin* 28 (1977): 65-66; Sparks, *Ancient Texts for the Study of the Hebrew Bible*, 70-71; John H. Walton, *Ancient Near Eastern Thought and the Old Testament: Introducing the Conceptual World of the Hebrew Bibl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6), 29-40.

42) 이은애,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여성의 지혜-평화를 가져오는 힘",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6권 (2008), 33-57.

다.⁴³⁾

잠언에서 지혜는 의인화되어 여러 모양과 양식으로 보여진다(잠 1:20-33; 3:15-18; 9:1-12). 이것을 인간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대상으로 설명된다. 지혜는 모든 사람의 안내자로서(잠 8:1-5), 이생에서 추구하는 현세적 성공의 열쇠로(잠 8:14-21), 또는 진리를 알리는 방식으로 인간들을 부르고 있다(잠언 1:20-21).⁴⁴⁾ 지혜는 또한 도덕성의 기본을 강조하는데(잠 8:6-13), 그것이 말하는 것은 올바르고, 선과 정직, 진리를 선언하며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은이나 금보다 지혜의 훈계와 지식을 추구하라고 권고한다. 그것은 진주보다 귀하기 때문에 무릇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고 설파한다(잠 3:15; 4:7).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며, 명철과 함께 있고 지식과 근신을 추구한다(잠 1:7; 8:12). 지혜는 스토아 철학의 최고 가치인 덕처럼 “모두에게 열려있고, 모든 것을 인정하며, 모두를 초청”한다.⁴⁵⁾ 지혜는 고대근동의 다양한 모습들이 통합되어 보편성을 지니고, 고대 이스라엘의 현세적 삶과 히브리 종교적 비전을 융합하려는 의도로 편집된 것으로 보인다.⁴⁶⁾

2) 지혜의 신격성

특히 잠언 8장 6-21, 32-36절의 특이점은 지혜의 의인화를 기초로 그것을 신격체로 실체화/신위화시킨다는 것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43) 김춘기, “지혜의 인격화(Lady Wisdom)와 로고스의 관계”, 『신학과 목회』 18 (2002): 70-71.

44) *The New Interpreter's Bible: General Articles & Introduction, Commentary, & Reflections for Each Book of the Bible, Including the Apocryphal/ Deuterocanonical Books* (Abingdon Press, 2002), V:88-90.

45) M. Hengel, *Judaism and Hellenism*, vol. 2 (Philadelphia: Fortress, 1974), 296, 98n cited in *New Interpreter's Bible*, V:90.

46) 박종수는 잠언 8:22-31 & 31:10-31의 여성지혜는 제한된 종교 및 사회적 여건에서 구원의 매개체로, 성차 별을 배제하고, 야훼 신앙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지키고, 모든 희망의 예시라고 제안한다. 박종수, “잠언서에 나타난 여성지혜: 잠언 8:22-31 & 31:10-31을 중심으로”, 『論文集』 25 No.1 (1994), 9-31.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굵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느니라”(잠 8:6-7). 지혜는 오직 야훼 하나님만의 주관적 행위를 주관한다. 지혜는 안전과 진리의 근원이며, 도략, 참 지식, 명철과 능력이 있다(잠 8:14).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이 다스리고 사법정의를 세우며, 지혜를 얻은 자들은 지혜의 사랑을 받으며 그것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만날 것이다. 지혜는 생명과 은총의 시여자로서 그 가치는 장수, 부귀, 재물 그리고 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소득은 금이나 정금보다 뛰어나다(잠 8:15-18). 심지어 지혜는 집을 짓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를 초청하고 있다(잠 9:1; cf. 7:6).

지혜의 이런 모습들은 그것이 고대근동의 이쉬타르/아스다롯 같은 여신의 잔영이나 가나안 신화의 바다와 엘의 투쟁 모티브가 일부 내재하는 듯하지만(W. L. Knox 등),⁴⁷⁾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은 모두 남녀 성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져 있고, 메소포타미아 여신들의 이미지는 폭력과 투쟁 및 퇴폐성을 드러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⁴⁸⁾ 음녀에 대한 모티브는 이집트의 정의와 진리의 여신 마아트와는 일부 유사성이 있지만, 잠언의 지혜가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는 결여되고 이집트의 마아트는 지혜의 포괄적 성격과는 배치되며 오히려 지혜는 그런 것들을 배격한다. 또한 지혜를 하나님이나 창조의 속성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의 의인화라는 주장도 있지만(잠 3:19-20), 잠언 3장이나 8장의 전체적 의도는 의인화나 하나님의 속성 이상의 인격적 실체 내지 신격체의 실존을 논하고 있

47) Albright, "Canaanite-Phoenician Source of Hebrew Wisdom," 8; cf. R. N. Whybray, *Wisdom in Proverbs* (London: SCM, 1965), 82-92; W. McKane, *Proverbs*,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70), 354-356.

48) Rivkah Harris, "Inanna-Ishtar as Paradox and a Coincidence of Opposites," *History of Religions* 30, No. 3 (Feb., 1991), 261-278; Michael D. Coogan, *Stories from Ancient Canaan* (Louisville: Westminster Press, 1978), 17-23, 27-31.

다.⁴⁹⁾

지혜는 창조의 주체로서 여러 번 강조되고 있다. “나 지혜는…”(잠 8:12) “나는 지혜이다(I am wisdom)”라는 뜻의 동사가 없는 신적 특성의 표현이다. 이는 지혜가 자신의 신격을 칭송하는 표현으로 성서에서 많이 나타나는바 피조물에는 사용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신적 자기소개(self-introduction) 호칭이다. 이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 19:10, 25, 34)⁵⁰⁾와 평행되는 것으로 “나는 여호와니라”(레 18:4-6, 21; 19:12, 14,16 등) 또는 “나는 여호와”⁵¹⁾ 및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레 11:44; 18:2; 겔 20:5, 19)라는 식의 유사하게 여러 번 표현된다(레 20:7-8; 21:8, 15, 23; 22:9, 16, 32). 이런 형태는 고대근동의 신들이 주로 자신을 드러낼 때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메소포타미아의 성과 전쟁의 여신 이쉬타르가 “나는 아르벨라의 이쉬타르이다.” 또는 이집트의 태양신 레(Re)나 여신 이시스가 자신의 신위를 주장했던 자기 칭송들도 이와 같다.⁵²⁾

또한 “내가… 창조자가 되어”(잠 8:30),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이룬 사실들을 선포한다(잠 8:27-29). 지혜는 여기서 분명한 자기 인식적(self-aware) 신격체로서 창조 사역의 주체임을 나타낸다. 이런 신성의 실체는 뒤이은 잠언 8장 32-36절의 지혜의 초청에서

49) Duane A. Garrett, *Proverbs, Ecclesiastes, Song of Songs,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Exposition of Holy Scripture*::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TN: Broadman Press, 1993), 112-113; Robert M. Bowman, Jr., “Proverbs, Personification, and Christ,” <http://www.forananswer.org/Top JW/Bowman prov8.ht>.

50) 레 20:7; 23:22,43; 24:22; 25:17,55; 26:1; 민 10:10; 사 6:10, 개정개역; 레 20:24; 19:36; 수 23:14; 겔 12:25; 35:12; 속 10:6; 말 3:6 등.

51) 창 28:13; 출 6:2; 6:6,8,29; 12:12; 16:12; 레 11:44; 18:5,6,21; 19:12,14,16,18,28,30,32,37; 21:12; 22:2,3,8,30-31,33; 26:2,44-45; 민 3:13,41,45; 15:41; 24:13; 사 42:8; 43:3,11,15; 45:5-7,18; 렘 32:27; 겔 12:25; 20:5,7,19. Stephen K. Sherwood, *Leviticus, Numbers, Deuteronomy*: Beit Olam Studies in Hebrew Narrative & Poetry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2000), 29-44.

52) Nemet-Nejat, “Neo-Assyrian oracles,” *Women in the Ancient Near East: A Source Book* (2013): 240; Michael V. Fox, “World Order and Maat: A Crooked Parallel,” *Journal of the Ancient Near Eastern Society* 23 (1995): 37-48.

도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잠 8:34);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잠 8:35-36). 이런 특성은 의인화를 넘어 창세전 영원부터 계신 창조협력자의 신격성을 나타낸다.⁵³⁾

3) 지혜의 선재성

지혜는 신격체로서 잠언 8장 22-29절에서 자신의 선재성을 분명하게 창조사역과 관련하여 논한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잠 8:22-29).

여기서 지혜의 신적 기원은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라는 말에서 **רֵאשִׁית** (레시트/태초)는 바로 천지창조 원역사의 태초와 동일한 기술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선재성을 천명한다.⁵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는 창조 자체와 관련되어 있지만, 잠언 8장 22절에서

53) 골 1:15-17; 히 1:2-3; cf. Sir 24:3-4; Wis 7:25.

54) BHS note a.

태초는 하나님 자신의 אלהים(데레크/길)와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 자신의 본성이나 태도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화의 시작’이란 곧 하나님의 길, 존재의 시작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태초에 여호와께서 지혜를 “가지셨다(נָפַץ)”는 말은 세기적 이슈이다. 그 의미는 “세우다, 기초를 두다, 소유하다, 창조하다” 등의 피조격의 뜻 보다는, 임명의 의미로 시편 2장 6-7절의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보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는 말씀에서 메시아 왕을 세우신(נָפַץ III) 것처럼 왕직이나 직분에 취임하는 것을 말한다.⁵⁵⁾ 지혜는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창조사역과 관련하여 창조협력자로 직임을 부여받았다는 뜻이다. 신적 지혜가 문자적으로 출생했다거나 또는 존재하지 않은 어떤 때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천지창조 이전 창조주 하나님만이 계시던 시대에 이미 존재했다는 것으로 그 근원이 영원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의미이다.

그 근원을 만세전, 상고, 그리고 땅이 생기기 전에 있었다는 것을 강

55) נָפַץ의 해석과 이해 문제는 4세기 기독교 논쟁의 핵심적 이슈가 되었다. “가지셨다(נָפַץ)”라는 히브리어의 해석문제이다. Vulgate, Aquila, Theodotian, Symmachus, Venetian역은 ‘소유하다’로 해석하고, LXX와 Syriac역은 ‘만들다’(ἐκτίσθαι)로 번역했다. 아리우스주의자들은 LXX의 ‘만들다’를 근거로 이를 ‘창조하다’(ἐκτίσθαι)로 번역하여 성자의 피조성(종속론, subordinationist view of Christ)을 주장했다. 물론 외경 집회서에도 지혜는 하나님의 피조물(creature, Sir 1:4)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에 대항하여 아타나시우스를 위시한 교부들은 ‘소유하다(ἐκτίσθαι)’로 번역하고, 그 의미를 창조가 아닌 직임에 대한 임명의 의미로 읽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로 해석하여, 성부와 더불어 성자의 공동 영원성과 특수한 관계로 이해했다. ἐκτίσθαι로 읽는다고 하더라도 잠언 8장 22절의 의미는 실제적인 존재가 아니라 성육신이나 태초에 지혜를 창조협력자로 세웠다는 의미가 된다(계 3:14). 요한복음의 말씀처럼(요 1:1)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창조협력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נָפַץ는 ‘왕을 기뻐하다,’ ‘기름짜다’ 보다는 직임에 ‘세우다’로 보는 견해를 따른다. 반면, 폭스(Michael V. Fox)는 נָפַץ로 보아 “조직하다”로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 안에 감춰져 있는 속성으로 본다. C. F. Keil and F. Delitzsch, *Keil-Delitzs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76), 6:182-184; Davidson, “Proverbs 8 and the Place of Christ,” 48-50; *BDB*, 650,888-889; Michael V. Fox, *Proverbs 1-9: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Y: Doubleday, 2000), 281; *HALOT*, 320; *TDOT*, XIII:58-64. *nsk*에 대한 해석사 참고: Bruce K. Waltke, *The Book of Proverbs Chapter 1-15*: NICOT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4), 408-409.

조한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אֶרֶץ)”(잠 8:22), “만세 전부터(מִיְמֵי)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잠 8:23)에서도 시간과 관계되는 מִן(민/ 전)이 אֶרֶץ과 함께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이런 모습은 뒤이은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잠 8:24)고,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잠 8:25)다는 것과 함께 유한한 피조계(finite creature)가 있기 전에 이미 지혜의 신적 선재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들이다.⁵⁶⁾

이러한 지혜의 선재성에 관한 표현들은 창세기 1-2장의 창조기사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잠 8:27-29)의 표현들에서 동원되는 대상들인 하늘, 물, 땅의 순서도 창조주일의 기본요소들과 그 구조가 유사하다(창 1:1-2). 이 세 요소들은 고대인들의 이 세상 실체의 모든 것을 의미했다(출 20:4; 시 24:1-2). 천지만물은 지혜에 의해 창조되고 하나님의 섭리 하에 있음을 보여준다. 지혜는 이 세상 창조 시 창조협력자로서 피조된 존재가 아닌 신적 존재로 하나님의 실체이고 신위의 선재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모티브는 성서전체에 걸쳐 보여진다.

4) 잠언 천상회의

잠언 8장은 지혜의 의인화를 넘어 신적 선재성에 기초한 협의체 형식의 천상회의를 드러낸다. 함무라비 천상회의처럼 잠언 천상회의도 지상의 인간사와 천상 영역의 창조사역을 포괄하는 우주적 대주재들

56) 박종수, “잠언서에 나타난 여성지혜: 잠언 8:22-31 & 31:10-31을 중심으로”, 20-21.

이 주관하는 협의체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서두에서 천상회의의 주체인 “우주적 지혜(cosmic Wisdom)”⁵⁷⁾로 지상의 청중을 초청하면서 자신을 ‘내가’로 지칭하고 인간들을 향해 소리를 높인다(잠 8:1-5). 뒤이어 지혜는 자신을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고,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며 ‘내 입’은 진리를 선포한다고 했다(잠 8:6-7). ‘내 입’의 말은 다 의롭기 때문에 그 가운데 굽은 것이나 패역한 것이 없고 총명 있고 지식 얻는 자들이 정직히 여기는 바이며 그래서 인간들은 은 대신 지혜인 ‘나의’ 훈계를 받고 정금보다 지혜에 대한 지식을 얻으라고 권고한다. 지혜의 가치가 물질적 부요보다 뛰어나다고 가르친다(잠 8:8-11).

신격체로서 “나 지혜는”(잠 8:12) 명철과 함께 있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잠 8:12-1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 1인칭 “나”로 설명한다(잠 8:13).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는 통치자는 백성을 잘 다스리고 여러 유익을 얻는 반면(잠 8:14-20), 지혜를 버린 자는 사망에 처하게 된다(잠 8:34-36).

특히 지혜는 천상 영역의 이슈들인 천지만물의 창조에 있어 천상회의의 주체로 참여한 사실을 밝힌다(잠 8:22-31). 회의의 주관자인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와의 협의 대상과 창조사역의 주체로서 자신을 드러낸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고 했다(잠 8:22-23). 이는 양 주체간의 천상회의의 결정사항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창조사역을 위해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협력자의 천상회의의 이런 관계 모티브는 뒤이은 바다, 큰 샘들, 산, 언덕, 땅, 들, 세상 진토, 하늘과 궁창 등의 창조 사역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피조물들이 창조되기 전에 지혜가 창조협력자로 세움을 입었다고 선언한다. 이 회의

57) *The New Interpreter's Bible, General Articles & Introduction, Commentary, & Reflections for Each Book of the Bible, Including the Apocryphal/Deuterocanonical Books, Vol. 5, (Nashville: Abingdon Press, 2002), 88.*

의 주체인 지혜를 ‘나,’ ‘내,’ ‘내가,’ ‘나는,’ ‘나로,’ ‘나를’ 등의 강조적 어법으로 표현한다(잠 8:4, 6, 7-8, 10, 12-19, 20-25, 27, 30, 32, 34-36),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여호와(잠 8:22),’ ‘하나님(잠 8:26),’ ‘그가’(잠 8:27-28), 혹은 ‘그’(잠 8:30) 등의 3인칭 호칭으로 천상회의의 신적 실존들을 드러낸다.

특히 잠언 8장 30-31절의 천상회의는 창조협력자의 창조사역의 협력과 인간들을 위한 중보(中保), 그리고 인간 삶 전체 및 양 신위들간의 희락의 모티브를 제시한다. 잠언 8장은 성서에서 가장 많은 신격의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면서 천상회의를 증언한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협력자의 천상회의 모티브는 구원사의 최후까지 성서전체에 걸쳐 다양하게 적시된다.⁵⁸⁾

4. 창조협력자의 신원

잠언 8장 27-31절은 지혜의 신격성과 선재성을 기초로 창세전 천상회의의 신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지혜는 창조협력자로서 의인화되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늘, 궁창, 땅과 바다를 창조하고, 바다의 샘들과 물이 하나님의 자연질서를 따르고 순종하도록 하는 창조사역에 동참하고 협력했다고 선언한다(잠 8:27-29). 더 나아가 의인화를 넘어 이 두 신격체들 간의 천상회의의 모습을 회화적으로 분명히 제시한다. 천상회의의 두 주체들간의 시각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58) 이종근, “함무라비 법과 성서에 나타난 천상회의”, 62,76-87. 구약의 천상회의는 원역사의 창조, 범죄와 타락, 추방 및 홍수 사건에서도 분명히 언급된다(창 1:26; 3:22-24; 11:7). 역사서에서는 북방 이스라엘 아합 왕에 대한 거짓 영의 역사를 허용하고(왕상 22:19), 시가서에서 인간 고난의 원인을 제공하며(욘 1:6-11; 2:1-7), 인간 통치를 주관한다(시 82:1). 선지서에서는 이사야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역사를 섭리하며(사 6:8), 다니엘서의 하늘 보좌는 천상회의의 장(場)으로 심판의 권세를 부여한다(단 7:9-10,13-14). 스가랴서는 태초 양 신위들 간의 인간구원을 위한 평화의 회의를 다룬다(속 6:13). 신약에 와서는 삼위 하나님의 연합된 사역을 더욱 분명하고 다양하게 보여준다(마 3:16-17; 고전 8:6; 골 1:16-17; 히 1:1-2; 계 1:5-6; 2:7; 21:10 등).

וַאֲהִיָּה אֶצְלוֹ אֱמוּן וְאֲהִיָּה שְׁעָשְׂעִים יוֹם⁵⁹⁾ יוֹם מַחֲקָת
 לִפְנֵיו בְּכָל־עֵת:
 מִשְׁחַקָּת בְּתַבְל אֲרָצוֹ וְשַׁעֲשֵׂי אֶת־בְּנֵי אָדָם:

내가(창조협력자, 역자주)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그분의] 땅⁶⁰⁾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잠 8:30-31, [] 추가, 개정개역).

여기서 창조자(אֱמוּן)는 지혜의 신격체로 ‘공인,’ ‘장색,’ 또는 ‘기술자’를 뜻한다.⁶¹⁾ “내가”로 표현된 지혜의 신원에 대해선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대부분(NIV, NRSV, HALOT)의 견해는 이것은 시적 의인화 이상의 창조협력자의 신위를 말한다는 것이다.⁶²⁾ 여기서의 지혜의 신격체를 “내가”로 표현되고 있다. “내가 그분(אֱמוּן)(에츠로)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는 것은 창조협력자가 창조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했다는 의미이다. 창조협력자 그분이 창조의 기초이며 토대이라는 의미이다. 창조주간의 원역사에서 인간 창조는 문화명령으로 귀결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존재의 목적이 “생육

59) ׀(옴/매일)이 반복된 것은 개념이 확장된 의미로 표현된 것이다. Bruce K. Waltke &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115-116, 7.2.3b.

60) 개역성경은 “그분의(이)가 생략된 번역이다. 이것은 “사람이 거처할 [그분의] 땅(אֶרֶץ)에서”로 읽어야 한다. 공동번역은 “그가 만드신 땅.” 표준새번역은 “그분이 지으신 땅”으로 번역한다. 이 때 אֶרֶץ는 תּוֹבָה보다 더 넓은 의미의 땅을 말한다.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153, 9.5.3i.

61) Waltke, *The Book of Proverbs Chapter 1-15*, 417-420; אֱמוּן에 관한 연구 참고: Cleon L. Rogers, III,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the Hebrew Word ׀ m n in Proverbs 8:30,” *ZAW* 109 (1977), 208-221; Patrick W. Skehan, “Structures in Poems on Wisdom: Proverbs 8 and Sirach 24,” *CBQ* 41 (1979): 365-379; Scott, “Wisdom in Creation,” 213-223.

62) Scott, “Wisdom in Creation,” 222-223; Alan Lenzi, “Proverbs 8:22-31: Three Perspectives on Its Composition,” *JBL* 125, No 4 (Winter, 2006), 690-709.

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 cf. 2:15)는 것이었다.⁶³⁾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삶의 소이(所以)이다.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창조협력자로서의 지혜는 뒤이은 잠언 9장 1절에서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집을 짓는 주체로 시사된다. 일곱 기둥은 창조주일의 칠일 또는 창조의 웅장함이나 통합성 및 완전성을 암시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창조협력자의 신격 이미지는 잠언 30장 4절에서 더욱 연유된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는 다섯 가지 의문에 대한 대답은 인간이 아닌 신성의 창조협력자뿐이다. 전체적으로 신적 초월성, 창조성, 전능성, 부자간의 인격성 등을 포용하는 신격체인 창조협력자를 드러낸다.

창조협력자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지혜가 기뻐했다는 것(עִיֵּשֶׁת)은 ‘즐거워하고 기쁨을 주는’ 이미지이다.⁶⁴⁾ 즐거워하다(נִרְנְנָה)는 ‘웃다,’ ‘놀다(play),’ ‘비웃다’ 등의 뜻으로 여기서는 웃고, 놀이하는 의미이다.⁶⁵⁾ 마치 다윗이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기뻐 뛰어 놀았던 것과 같다(삼하 6:21; cf. 잠 10:23). 이 즐거움은 창조협력자가 “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즐거워 그가 만드신 땅 위에서 뛰놀았다”(잠 8:31, 공동번역)로 번역되는 것과 같이 기뻐 뛰노는 모습이다(divine play).⁶⁶⁾ 이것은 신들 간의 관

63) 이종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문화명령(창 1:28; 2:15)의 신학적 고찰, 『구약논단』 8집(2000. 6. 5), 9-32.

64) BDB, 1044; DOTTE, 4:205.

65) BDB, 965-966. 피엘형의 ‘놀다,’ ‘운동하다,’ ‘춤추다’(삿 16:25; 시 104:26; 렘 30:19; 속 8:5).

66) 신들의 놀이(divine play) 모티브를 발전시켜 플라톤은 천체의 움직임을 기뻐 춤추는 신들의 무용으로 보고 그리스 신화와 과학 이론을 통합했다. 이 모티브는 후대의 Philo, Acts of John, Plotinus, Calcidius, Julian, Gregory of Nazianzus, Proclus, and Pseudo-Dionysius 저술들에서도 나타나고,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James L. Miller, *Measures of Wisdom: The Cosmic Dance in Classical and Christian Antiquity*. Vol. 1. (Toronto; Buffal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86), 19-55;

계가 어색함, 엄숙함, 긴장감, 갈등 등의 분위기가 아닌, 즐거움의 관계이며 창조사업을 완성했을 때 희열로 마쳤다는 뜻이다.

고대근동에서 도시나 왕궁 및 신전 건축공사가 진행이나 완공은 기쁨의 축제였던 것처럼,⁶⁷⁾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협력자는 창조사역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욥 38:7; 시 104:30-31; 램 30:18-19). 창조협력자가 모든 창조 사업의 기초이자 주체가 된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창조 기사에서 그분의 지혜로 창조된 만물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다(창 1:4, 10, 12, 18, 21, 31)는 감탄을 자아내게 했던 것으로 투영된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이다. 잠언 8장 22-36절에서 창조협력자는 신성의 신격체로서 창세전 하늘과 물 그리고 땅을 창조했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⁶⁸⁾

창조협력자가 사람이 기거할 땅에서 즐거워했다는 것은 이 땅은 창조주 하나님의 즐거움의 대상이라는 것이다(사 45:18). 이 세상은 지혜의 걸작으로, 그분의 즐거움의 대상이며 지극한 관심과 돌봄의 대상으로 창조되었다. 천지만물이 모두 완전한 질서와 신묘막측한 구도로 이루어 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창조협력자는 인간들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신적 기원을 보여준다. 인간의 어떤 공로나 미덕이 아닌 인간 존재에 대한 신적 디자인(divine design)에 따른 인간의 가치와 본분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기쁨의 원천도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협

Chuck Melchert and Anabel Proffitt, "Playing in the Presence of God: Wonder, Wisdom and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Spirituality* 3.1 (1998): 21-34.

67) ANET, 134,558,560.

68) 창조협력자의 이런 모티브는 후대 전승에서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 선포된다(골 1:15-16; cf. 계 1:5).

력자의 희락의 관계에서 기인됨을 밝힌다.⁶⁹⁾ 이런 즐거움은 지혜문학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욥 38:4-7)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인간 존재의 본질이 바로 이러한 신적 기쁨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인간 삶도 이런 것의 연장이라는 것이다.

지혜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관계는 성서에 드러난 천상회의의 원형(prototype)이다.⁷⁰⁾ 이 양 신들의 회의에서 신위 간의 모습은 고대근동의 신들 간의 일부 유흥과 갈등의 관계나 상하 서열이 아닌 사랑과 우호의 매우 신선한 면을 보여준다. 창조협력자의 자세는 피조물에 대한 배려와 희생, 그리고 섬김과 사랑에 기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창세전 천상회의의 희락의 관계는 지혜문학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잠 17:22; cf. 잠 12:25; 15:15)에서 잘 나타나고, 더 나아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전 3:12)는 고백에서도 투영된다.⁷¹⁾

창조협력자는 창조주와 더불어 태초의, 만세전, 그리고 상고전, 땅, 바다, 큰 샘들, 산, 언덕, 땅, 들 및 진토의 근원이 지어지기 전, 하늘을 짓고 궁창이 해면을 두를 때, 구름하늘과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고, 바다의 한계와 땅의 기초를 정하는 창조사역에 동참했다고 했다. 이런 창조협력자는 링그렌(Helmer Ringgren)이 주장했던 바 고대근동이나 고대 이스라엘의 신화에서 유래되고 발전시킨, 신적 속성이 신격체로 진화하는 과정의 신격화/위격화(hypostatization)가 아니라,⁷²⁾ 고대근동

69) 성서에는 “기쁨”(94회), “기뻐하다”(334회), 및 “즐거움”(300회) 등을 나타내는 400사례가 다양하게 나온다. 헬란드 라이켄 외 편, 『성경 이미지 사전』, 홍성희 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214.

70) 이종근, “함무라비 법과 성서의 천상회의”, 83.

71) 이런 희열의 모티브들이 지혜문학에 많다. 잠 11:1, 10, 20; 12:22; 15:8; 16:13; 29:6; 전 2:26; 3:12; 7:14; 11:9 등.

72) Ringgren, *Word and Wisdom*, 148-149. 말쿠스는 창조협력자의 신격 개념을 이스라엘의 유일신 배경

의 천상회의 전승에서 이스라엘의 독창적 신앙유산으로 보인다. 그것은 지혜에 대한 후대 해석전승사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된 창조협력자 하나님으로 제시된다.⁷³⁾

또한 창조협력자가 땅에서 열락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들 간의 중보사역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⁷⁴⁾ 이것은 창세전 인간의 범죄 이전, 즉 성육신 이전의 창조협력자의 모습으로 보인다. 이는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 회복을 위한 모티브이며, 후대 해석영향사에는 범죄 후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들 간의 중보자 개념으로 발전되었다(딤펴전 2:5). 창조협력자는 창조사역의 협력자, 중보자, 그리고 인간과 피조계를 즐거워하는 희락의 모습을 드러낸다. 창세전 태초의 천지창조에서 창조협력자의 이러한 모델은 비록 범죄 후 왜곡된 혼돈과 어두움의 삶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하늘의 뜻임을 볼 수 있다.⁷⁵⁾ 창조협력자의 함의는 지혜로운 삶의 창조성, 기쁨과 역동성, 사명과 비전 및 열정, 그리고 이웃과 자연을 위한 중보적 자세 등의 의미를 던진다. 이것이 이생에서의 인간 정신과 태도 및 본분에 대한 청사진이다.

이런 창조협력자의 모티브는 후대 해석전승에서 헬라 철학의 성육화된 로고스(incarnated logos)와 소피아(incarnated sophia) 개념으로 발전된다. 로고스는 지혜처럼 창조주 하나님 곁에 계셨고 천지창조

에서 외형적인 것을 배격한 체 내면화를 발전시킨 속성으로 본다. Marcus, "On Biblical Hypostasis of Wisdom," 170-171.

73) 링거린 이후 와이브레이는 창조협력자를 신위화의 과정으로 지혜를 보지만, 바우어-카야츠(Bauer-Kayatz)는 이집트의 마아트(마아트)의 영향을 받은 별도의 신격체로 보았다. Whybray, *Wisdom in Proverbs, the Concept of Wisdom in Proverbs 1-9*, 80; Christa Kayatz, *Studien zu Proverbien 1-9* (Neukirchener Verlag, 1966), 76-119.

74) Shirley Wurst, "Women Wisdom's Ways: Ecolkinship," in *The Earth Story in Wisdom Traditions*, ed. Norman C. Habel and Shirley Wurst, *The Earth Bible 3*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59; Zoltan S. Schwab, *Toward an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Proverbs: Selfishness and Secularity Reconsidered*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2013), 184. 구약의 중보사역의 사례들: 창 16:13; 48:16; 욥 9:32-33; 16:19-21; 19:25-25; 단 10:13,21; 12:1 등.

75) 이종근, "함무라비 법과 성서에 나타난 천상회의", 91-92.

에 동역했다고 선포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πρός)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 1:1, 3, 14). 잠언에서는 지혜의 실체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음에도 신약에서는 헬라어의 로고스와 소피아로 표현했다(요 1:1-3; 고전 1:24, 30; 히 1:4).⁷⁶⁾ 로고스는 영원전부터 계셨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 교체를 나누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육화된 지혜로 인간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요 1:14; 요일 1:1).⁷⁷⁾ 이 로고스는 잠언 지혜의 완성이자 인격적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되는 해석영향사적 면모를 보여준다.⁷⁸⁾ 창조협력자의 신원은 성서 유비의 시각에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다.

5. 양 천상회의의 연관성

천상회의는 고대근동과 성서의 보편적 모티브로서 최고신들이 인간사의 중대 이슈를 다룬다. 천상회의의 주요 특성들은 다양한 면모에서 유사성과 차별성을 드러낸다.

76) Whybray, *Wisdom in Proverbs*, 59–52.

77) 김춘기, "지혜전승에서 본 현자예수", 「신학과 목회」 8 (1994): 29–92; idem, "지혜의 인격화 (Lady Wisdom)와 로고스의 관계", 「신학과 목회」 18 (2002): 61–75.

78) 천사무엘, "구약 지혜전승과 신약성서", 「구약논단」 (2005. 8), 128–144; 안근조, "히브리 지혜전승의 변천과 기독교의 기원", 223–224, 250–251; Marcus, "On Biblical Hypostasis of Wisdom," 157–171; Douglas Hamp, "Hypostasis, Proverbs Eight, and Wisdom Part Four," *Bible Interpretation* (2011); Davidson, "Proverbs 8 and the Place of Christ in the Trinity," 33–54; Michael V. Fox, "Ideas of Wisdom in Proverbs 1–9," *JBL* 116, No. 4 (Winter, 1997), 613–633; Alan Lenzi, "Proverbs 8:22–31: Three Perspectives on Its Composition," *JBL* 125, No. 4 (Winter, 2006), 687–714; John F. Priest, "Where Is Wisdom to Be Placed?," *Journal of Bible and Religion* 31, No. 4 (Oct, 1963), 275–282; Paul F. Knitter, "A 'Hypostatic Union' of Two Practices but One Person?," *Buddhist-Christian Studies* 32 (2012), 19–26. (www.douglashamp.com/hypostasis-proverbs-eight-and-wisdom-part-four).

첫째, 양 텍스트의 천상회의는 협의체 형식으로 진행된다. 함무라비 천상회의에서는 아누와 엔릴 신의 협의체 형식을 드러낸다. 천상회의는 하늘과 땅 그리고 지하의 신들의 집합체인 아누나쿠와 이기구 등 모든 신들을 포함하며, 두 신들의 주도하에 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반면 잠언 천상회의도 창조주와 창조협력자의 창세전 동역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면모는 원역사의 천지창조 기사에서도 창조의 주체인 하나님은 엘로힘('ēlôhîm)이라는 복수형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성령)의 모습으로 동역한다. 엘로힘은 위엄의 복수(pluralis majestatis)나 탁월성의 복수(pluralis excellentiae)를 뜻하는데, 다양성의 연합이라는 의미로 항상 단수 동사를 썼다. 이 말에는 “우리”라는 복수 신격체들의 협의체를 의미한다.⁷⁹⁾ 또한 잠언에서 지혜의 종지(宗旨)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 9:10)는 것인데, 여기서도 본문 상 거룩한 자(קִדְּוֹת)도 복수급의 신위를 의미한다.⁸⁰⁾

둘째, 양 천상회의는 복수의 최고신들의 절대주권을 드러낸다. 함무라비 천상회의에서는 영계와 인간계의 최고 주권과 운명을 엔릴이 주도적으로 결정했다. 엔릴 신이 주도적으로 아누 신과 더불어 영계의 패권을 마르둑에게 위임하고, 당대 지상 패권을 바벨론에 넘기고, 마르둑의 대리자이자 바벨론의 왕으로 함무라비를 선택해서 선포했다. 이는

79) Gordon J. Wenham, *Genesis 1-15*, WBC, eds. David A. Hubbard, Glenn W. Barker & John D. W. Watts (Waco, 1987), 27-28; Alexander Rofe, “The Name YHWH Seba’ot and the Shorter Recension of Jeremiah,” in *Prophetie und geschichtliche Wirklichkeit im Alten Israel: Festschrift für Siegfried Herrmann zum 65. Geburtstag*, Herausgegeben von Rudiger Liwak und Siegfried Wagner (Stuttgart, 1991), 307-316; Claus Westermann, *Genesis 1-11: A Commentary*, trans. John J. Scullion (Minneapolis: Augsburg, 1984), 147-165; Steve A. Wiggins, “A Reassessment of Biblical Elohim,” *JBL* 121.3 (2002): 538; *TWOT*, II:1864-1869; *NIDOTTE*, III:733-735.

80) 신격체의 복수 개념은 후대 해석영향사에서 신약에 자주 나타난다(마 1:18,20; 3:16-17; 27:46; 28:19-20; 눅 1:35; 3:21-22; 요 3:16; 15:26; 17:3; 고후 13:13; 빌전 1:2 등). Keil & Delitzsch, *Keil-Delitzs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3:41-42; cf. Jacob Milgrom, *Numbers: The JPS Torah Commentary* (NY: Jewish Pub. Society, 1989), 51.

마르둑의 최상권, 바벨론의 패권 그리고 함무라비의 왕권의 정당성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잠언 천상회의도 창조주와 창조협력자가 천지창조에 대한 절대권을 나타낸다. 잠언 8장의 창조 대상은 창세기의 하늘, 물, 그리고 땅과 각각 평행한다.⁸¹⁾ 창조협력자는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잠 8:23),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잠 8:35) 식의 신격화된 절대적 1인칭 지체로 8장에서만도 무려 36회 반복하여 자신을 강조한다(잠 8: 4, 6, 5-8, 10, 12-25, 27, 30, 32, 34-36). 창조협력자는 “나”라는 신원으로 창조주와 더불어 창세전 창조사역을 주도했으며, 이는 창세후의 다른 모든 천상회의의 기초이자 모델로 보인다. 창조협력자는 함무라비의 엔릴 신처럼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인간 구원을 위한 희망과 축복의 모티브로 제시된다.

셋째, 양 천상회의의 목적이 법과 정의이며 백성들의 복리이다. 함무라비 천상회의의 목적이 법과 정의 그리고 복리 증진이었다. 이러한 모티브는 인류 법문화의 원형으로서 역사의 마지막까지 지속되는 가치이다. 함무라비는 정의의 신 사마시의 뜻에 따라 “정의가 나라에서 넘치게 하였고 악한 자와 악을 없애고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지 못하게” 했다(LH 전문 i 27-49; cf. LH 결문 xlvi 79-xlviii 2). 또한 이런 뜻으로 함무라비는 법을 제정했다고 선언한다.

지체의 대 강령도 공평과 의, 즉 공의⁸²⁾인데 이를 행하는 것이 제의적

81) 잠언의 지체의 창조행위와 창세기의 창조기사의 평행은 다음과 같다: 태초(잠 8:22// 창 1:1-2); 땅(잠 8:23// 창 1:9-10); 물(잠 8:24// 창 1:9); 하늘(잠 8:27// 창 1:14-18).

82) 공평과 의(*mišpāṭi ūṣēdāqāh/ kittum u mišarum in Akkadian*)는 중언법/ 이사일의(二詞一意, hendiadys)로 사회정의, 또는 공의로 표현된다. 법/ 공평은 원칙이나 규범을 따라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며, 정의/ 공의는 법을 따라 약자를 도와주는 의미가 있다. 이종근, “고레스 신탁과 고레스 실린더”, 『구약논단』 19권 2호(2013. 6. 30), 154-155; Russ Versteeg, *Law in the Ancient Near East* (Durham: Carolina Academic Press, 2002), 20-21; Moshe Weinfeld, “Justice and Righteousness” *mshpt wtsdqh the Expression and its Meaning*, *Justice and Righteousness* (Sheffield, Eng: JSOT Press, 1992), 228-246; R. Westbrook, “Mesopotamia: Old Babylonian Period,” ed. R. Westbrook, *A History of Ancient Near Eastern Law* (Leiden: Brill, 2003), 1:363-365; Stephen C. Hicks,

가치인 제사보다 우선했다(잠 15:8; 21:3). 지혜는 공평과 의의 길로 행한다(잠 8:20; cf. 잠 1:3; 2:8-9; 8:15; 29:4). 천상회의는 공의와 공평의 기초위에 세워져 있다(잠 20:28; cf. 잠 3:3; 16:6; 21:21; 시 89:14; 97:2; 103:19). 천상회의의 공의는 인류의 만고불변의 사회적 이상으로 구원사의 바탕이 된다.⁸³⁾

넷째, 양 텍스트에서 신들의 관계가 고상하게 드러난다. 함무라비 천상회의에서 신들의 신원이 고상한 존칭으로 표현된다. 신들의 왕이자 존엄한 아누, 그리고 하늘과 땅의 주이자 땅의 운명들에 대한 결정권자인 엔릴 신의 명칭이 지엄하지만 통일과 조화의 모습들이다. 그 전문은 함무라비 왕의 통치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성격이 짙지만, 신들의 모습은 모두 상호 소통과 협력을 나타내고 혼돈과 갈등을 넘어 협치에 이르는 방책으로 보인다.⁸⁴⁾

천상회의에서 창조협력자의 창조주 “겔”과 “얏”(잠 8:30-31)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희락의 관계는 신계의 본질이다. 따라서 “하나님

“Comparative Law in Ancient Times: The Legal Process,”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Supp. 34 (1986): 81.

83) Moshe Weinfeld, *Justice and Righteousness in Israel and the Nations: Equality a Freedom in Ancient Israel in Light of Social Justice in Ancient Near East* (Jerusalem, 1985), 5.

84) 메소포타미아 문헌에서 신들의 폭력성은 두드러진다. 메소포타미아법이 신화와 종교 문헌보다는 최상의 언어로 기록되었지만, 함무라비 법 전문과는 판이하게 달리 결문에서는 신들의 폭력성이 현저하다. 아누는 거칠고 사납게 그의 뜻에 반하는 왕권을 힘이나 무력으로 빼앗고 처벌수며, 운명을 저주한다(LH 결어 xlix 45-52). 엔릴 신도 함무라비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엔릴이 “그 자신의 거처에서 진정될 수 없는 혼란과 그를 잊어버리게 할 반역을 그를 대항하여 일으키기를 원”(LH 결문 xlix 53-80)한다고 했다. 그는 나라의 멸망, 백성의 소멸, 및 생명의 멸절의 신으로 드러난다(LH 결문 xlix 81-97). 더 나아가 「엔릴과 닐릴」에서는 엔릴은 수명하는 닐릴(Ninlil)을 성폭행하고,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인간들의 소음에 엔릴이 아누, 사마시, 니룰타(Ninurta), 이쉬타르 등과 홍수를 일으켜 사람들을 죽이는 등 함무라비 천상회의의 모습과는 다른 부도덕성을 보인다. 마찬가지로 마르둑도 정의의 신으로 복리를 가져오게 한 주체이지만, 함무라비의 패권경쟁에서 전쟁 종식과 원수를 처벌하는 힘의 주체로 함무라비의 법의 권위에 대한 도전해 대해 상상할 수 있는 60여 저주를 선언하면서, 신명(神名)도 50여개의 다양한 이름으로 언급된다(LH 결어 xlvi 9-58, xlvii 9-58, xlix 45-52). 구약성서에도 신의 모습에 성전(聖戰) 등의 경우 일부 폭력성이 있는 사례도 있다(수 6:21; 7:25-26). 이종근, 「히브리 사상」(서울: 삼육대학교출판부, 2014, 개정판), 332-337; *ANET*, 76-99; Walton, *Ancient Near Eastern Thought and the Old Testament*, 30-32, 90; *COS* 1, 132, 458-460; cf. Sparks, *Ancient Texts for the Study of the Hebrew Bible*, 316-317.

앞”(Coram Deo, 잠 3:4; 전 5:2 등)과 그분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존재와 관계의 밑바탕도 희락이다.⁸⁵⁾ 그래서 지혜문학에서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창조적 삶을 영위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다(잠 17:22; 전 5:18; 9:9).

창조협력자는 후대 전승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슥 3:17)는 말씀에서 극적으로 투영된다.⁸⁶⁾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땅을 향한 무궁한 사랑으로 드러난다(렘 31:3). 이런 인간 구원과 축복의 모티브는 해석사적 전승에서 성서 전체에 걸쳐 드러난다(엡 1:3-6; 고전 8:6; 골 1:16-17; 히 1:1-2 등). 창조협력자의 이런 모습은 모든 존재의 이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잠언 천상회의의 희락과 더불어 성서는 고대근동의 여러 다른 신위들과는 현저하게 다른 창조협력자의 여러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신위의 특성들을 드러낸다.⁸⁷⁾

천상회의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신관과 세계관의 차이가 있다. 성서는 유일신이지만, 함무라비는 다신교를 신봉했다. 성서의 유일신관은 후대 해석영향사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인간 구원

85) 하나님을 닮은 삶은 ‘그리스도를 닮은’(Imitatio Christi) 것이라고 언급된다(롬 15:5; 고전 11:1; 빌 3:17 등).
 86) 구약의 신적 희열의 모티브의 예들: “여호와와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와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찌로다”(시 104:31; cf. 느 8:10; 사 62:4; 65:19; 렘 32:41). 후대 해석사의 전승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는 것도 있다(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 제 1번, http://kcm.kr/dic_view.php?nid=20029).
 87) Marcus, “On Biblical Hypostasis of Wisdom,” 171. 고대근동의 신위들은 외형적인 것 즉 신들의 음성, 의복, 족보 및 형상 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었지만 신격의 내면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반면 히브리 신격의 외형적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면적 특성들이 잘 알려져 있다. 신성의 특성에 대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는 분이라고 선언한다(출 34:6-7). 그분은 전지(시 139:1-18), 전능(단 4:17,25,35), 무소부재(시 139:7-12), 불변(말 3:6; 시 33:11)의 하나님이다. 해석사적 전승에서 이런 면모는 성서 전반에 걸쳐 알파와 오메가(계 1:8; 21:6; 22:13),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의 하나님(계 1:17; 21:6; 22:13)으로 또한 인간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롬 5:8), 거룩(시 99:9), 공의(계 22:12), 진리(요일 5:20) 등의 인격적 신으로 제시된다.

을 위한 뜻과 목적 및 정신에서 일치를 말하는 삼위일체(三位一體, trinitas/trinity)로 발전된다.⁸⁸⁾ 각 다른 신격/ 신격체 개체(persona)로 실재하지만, 본질(essentia)에 있어서는 스스로 계신 분으로 인간과 구분되는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마치 고대 이집트의 왕을 바로로 그리고 로마 황제의 칭호를 가이사로 불렀던 것처럼 삼위일명(三位一名) 내지 삼위일성(三位一性)의 개념으로 보인다.⁸⁹⁾ 반면 함무라비 법의 전문과 결론에서는 40여 신들과 신전들이 언급될 정도로 다신 사상을 드러낸다. 함무라비 법에서는 여러 신들의 성격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무하고, 단지 함무라비가 정복한 도시들과 그 신전들과 그들의 신들에 대해 함무라비와의 관계에서 나열되었다.

기원과 편집 시기에 관한 함무라비 천상회의는 기원전 18세기인 반면, 잠언 천상회의는 솔로몬 시대로 기원전 10세기경의 작품으로 보인다. 함무라비 천상회의가 시기적으로는 잠언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잠언 천상회의는 천지창조 이전 영원한 때를 다루기 때문에 오히려 잠언의 모티브가 함무라비 천상회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자의 차별성이 심화된 것을 볼 때에는 각

88) 구약에서도 삼위 하나님의 내부 복수성은 시사된다(창 1:26; 3:22; 11:7). 여호와와 사자가 하나님과 동일시 되고(출 3:6),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을 다르게 사용한다(창 1:2). 어떤 구절은 성령을 언급하고 구속 사업에서 셋째 위격을 드러낸다. “이제는 주 여호와(성부 하나님)께서 나(성자 하나님)와 그의 영(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느니라”(사 48:16); “내(성부 하나님)가 나의 영을 그(성자 하나님, 메시아)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사 42:1). 성서의 유일신관 관련 성경절들: 신 4:35; 6:4; 사 45:5; 속 14:9; 막 12:29-32; 요 17:3; 고전 8:4-6; 엡 4:4-6; 딤후전 2:5.

89) 해석영향사에서 지혜는 후대 기독교 신학의 삼위일체와 관련된다. ‘하나’라는 히브리어는 “오직 하나” 또는 “홀로 하나”(신 6:14; 속 14:9)라는 말로 독특한(unique) 한(‘ehād)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잠언에서는 삼위라는 말은 없지만, 삼위 하나님은 모두 유일(唯一)하신 스스로 계신 신격의 하나님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성부의 위격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잠 8:22,26, 개역성경), 성자의 위격은 지혜의 신격(잠 8), 성령의 위격은 ‘나의 신’(잠 1:23)으로 볼 수도 있다. 이 이슈는 추가 성찰과 연구의 여지가 있다. Hubertus R. Drober, *하성수 역, 『교부학』* (침묵: 분도출판사, 2001), 345-346; 이문균, “삼위일체 신관에서 본 기독교의 인간 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20 (2001), 109-134; 박만, 『현대 삼위일체론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김영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7 (2006), 161-184; 김일목, “삼위일체 신학의 윤리적 의미”, 『학문과 기독교세계관』2 (2011. 2), 39-54; 라후택, 『로고스 성경사전』(서울: 로고스, 2011), 1062-1064; Richard A. Muller,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5), 306-310.

자의 전승에서 독립적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창조협력자는 천상회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천지를 창조하였다.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희열과 역동적 관계를 형성하며 중보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피조물을 돌보고 아끼며 사랑하는 자세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지혜의 의인화된 신격체인 창조협력자는 후대 해석영향사에서 신약의 로고스와 소피아인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해석의 여지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잠언의 지혜는 현세적이고 처세에 관한 것도 있으며, 그 권위는 여호와의 창조와 비교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 지혜는 고대 이스라엘 삶의 다양한 모습과 종교적 비전을 통합하려는 문학적 의도로 편집되었다. 더 나아가 지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통해 이르러 오는 영원한 진리의 예표성을 지닌다. 특히 잠언 8장 20-31절에서는 의인화를 넘어 신격적 실체를 드러내는 천상회의를 제시한다.

천상회의는 인간사의 근원적 이슈에 대해 복수의 신들이 협의체 형식으로 운영된다. 함무라비 천상회의는 새 시대를 여는 당대의 패권과 왕권 등 인간 삶에 대한 주요 문제를 결정한다. 잠언 천상회의는 성서의 가장 근본적인 천지창조에 대한 절대권을 다룬다. 양 천상회의는 공평과 정의의 기초위에 세워져 있으며, 공의는 만고의 사회적 이상이다. 양 천상회의에서 신들의 신원이 긍정적으로 묘사된다. 함무라비는 존칭으로 신들을 묘사하는 반면, 잠언은 희열과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양 천상회의는 최고신들의 의논과 소통 그리고 협치에 이르는 민주적이고 시민적 특성을 보여준다. 잠언 천상회의는 인간을 권고하고 돕는 신들의 사랑과 돌봄에 기초하고 있다. 창조협력자의 민주성과 협력, 희락의

관계는 현세의 혼돈과 갈등을 넘어 모든 관계에 있어 협치에 이르는 최선의 방책으로 보인다. 창조협력자의 함의는 삶의 창조성, 희열과 역동성, 인간과 피조물들을 위한 중보와 배려, 사명과 비전 등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는 삶의 정신, 관계와 태도 및 본분에 대한 청사진이다.

천상회의는 고대근동의 보편적 현상의 일부로서 잠언 천상회의가 특정 시기 함무라비 법과 같은 문학형태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독자적으로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잠언 천상회의는 이스라엘의 독창적 신앙유산이며, 함무라비 천상회의 배경에서 잠언의 지혜는 창세전 신격체인 창조협력자이다. 비록 분명한 언급은 없지만 창조협력자로서의 지혜를 후대 해석영향사적 관점에서 신약의 로고스와 소피아인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해석의 여지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7. 참고문헌

- 강성열. 「구약성서로 읽는 지혜 예언 묵시」(서울: 한들, 2004).
- 구덕관. 「지혜와 율법」(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 권혁승. 「여호와 경외로서의 언약」, 「구약논단」 22 (2006): 27-44.
- 김광률. 「실천적 지혜를 탐구하는 잠언 교수」, 「신학논단」 62 (2010. 12), 57-79.
- 김성진. 「잠언의 지혜(חָכְמָה): 지혜의 문예적, 해석학적 기능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5권 (2011), 63-82.
- 김정우. 「잠언 8 장 22-31 절에 나타난 지혜의 성격과 창조에 있어서 그의 역할에 대한 번역적 고찰」, 「성경원문연구」 24 (2009): 7-33.
- 김진희. 「여자들의 신화적 우주: 생태여성신학을 위한 지혜와 영성에 관한 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4권 (2002), 449-476.
- 김춘기. 「지혜전승에서 본 현자예수」, 「신학과 목회」 8 (1994): 29-92.

- _____. "지혜의 인격화 (Lady Wisdom)와 로고스의 관계", 「신학과 목회」 18 (2002): 61-75.
- 김희석. "잠언 1-9장의 해석학적 기능과 신학적 함의", Canon & Culture 5.1 (2011): 203-235.
- 노세영. "지혜문학에 나타난 창조신학", 「신학사상」 85 (1994): 94-118.
- 박종수. "잠언서에 나타난 여성지혜: 잠언 8:22-31 & 31:10-31을 중심으로", 「論文集」25 No.1 (1994), 9-31.
- 박준서.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운동", 「구약논단」 (2006. 6), 133-149.
- 박혜경. "잠언 8장의 여성 지혜와 안병무의 「선천택」에 대한 해석학적 대화", 「신학사상」163 (2013), 9-45.
- 배철현.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왕사상", 「서양고대사연구」24 (2009), 35-66.
- 안근조. "지혜문학연구의 제방법론: 잠언 1-9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2012. 3), 34-59.
- _____. "구약성서의 "쉐마"와 호크마: 고대이스라엘의 지혜교육", 「기독교교육정보」21 (2008): 165-190.
- _____. "욥기 38-41장의 신언설의 이해와 문화전승사적 위치", 「구약논단」 20 (2006. 4), 147-166.
- _____. 「히브리 지혜전승의 변천과 기독교의 기원」 동연, 2016.
- 이용호. "이스라엘 지혜 문학과 그 영향 -구약성서 안에 이스라엘인 민족, 그들만의 고유한 지혜가 있는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5 권 (2015), 47-68.
- 이원일. "실천신학적 접근에서의 실천적 지혜", 「신학논단」 73 (2013. 9), 259-286.
- 이은애.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여성의 지혜 -평화를 가져오는 힘", 「한국기독교신학논총」56권 (2008), 33-57.

- 이종근. “함무라비 법의 도덕성”, 『법학논총』 23권 2호 (2011. 2. 28), 297-353.
- _____. 『메소포타미아 법의 도덕성과 종교』 서울: 삼육대학교출판부, 2011.
- _____. “고레스 신탁과 고레스 실린더”, 『구약논단』 19권 2호(2013. 6. 30), 154-155.
- _____. “수메르 법전승과 성서의 왕권신수설”,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2 (2014), 29-55.
- _____. “함무라비 법과 성서에 나타난 천상회의”, 『서양고대사연구』 41 (2015), 61-100.
- 장일선. 『삶을 위한 지혜: 히브리 지혜문학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조철수. 『수메르 신화: 인류의 역사시대를 시작한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이야기』(서해문집, 2003), 38-39.
- 천사무엘. 『지혜전승과 지혜문학: 지혜문학의 눈으로 다시 본 성서』 서울: 동연, 2009.
- _____. “잠언 연구의 주요 해석학적 과제들”, 『구약논단』 (2008. 12), 147-166.
- _____. “구약 지혜전승과 신약성서”, 『구약논단』(2005. 8), 128-144.
- _____. “지혜문학과 묵시문학의 관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2 (2004), 49-67.
- 한상수. 『함무라비 법전』 김해. 인제대학교출판부, 2008.
- Alkadry, Mohamad G. “Bureaucracy: Weber’s or Hammurabi’s,” *Ideal or Ancient?*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6, No. 3/4 (Fall, 2002–Winter, 2003), 317–345.
- Black, Jeremy and Anthony Green, *Gods, Demons an Symbols of Ancient Mesopotamia: An Illustrated Dictionary*. Austin:

- University of Texas Press, 1992.
- Coogan, Michael D. *Stories from Ancient Canaan*. Louisville: Westminster Press, 1978.
- Davidson, Richard. "Proverbs 8 and the Place of Christ in the Trinity," *ATS* 17/1 (Spring 2006), 33–37.
- Davies, W. W. *The Codes of Hammurabi and Moses*. Berkeley, CA: The Apocryphile Press, 2006.
- Doukhan, Jacques B. *Proverbs*. Nampa, Idaho: Pacific Press, 2014.
- Foster, Benjamin R. 'Epic of Creation/Enuma Elish', in *Context of Scripture*, 1:395–396.
- Fox, Michael V. "World Order and Maat: A Crooked Parallel," *Journal of the Ancient Near Eastern Society* 23 (1995), 37–48.
- Frankfort, Henry. *Kingship and the God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 Greengus, Samuel. "Legal and Social Institutions of Ancient Near East," in *Civilizat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eds. Jack M. Sasson et al. NY: Charles Scribner's Sons, 1995. 470–471
- Jacobsen, Thorkild. "Primitive Democracy in Ancient Mesopotamia," in *Toward the Image of Tammuz*, ed. W. L. Mora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 _____. *The Treasures of Darknes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6.
- Landes, George M. "Creation Tradition in Proverbs 8: 22–31 and Genesis 1." *A Light unto My Path: Old Testament Studies in Honor of Jacob M. Myers* (1974): 279–293.
- Leick, Gwendolyn A *Dictionary of Ancient Near Eastern Mythology*. NY: Routledge, 1998.

- Lenzi, Alan. "Proverbs 8:22–31: Three Perspectives on Its Composition," *JBL* 125. No 4 (Winter, 2006), 687–714.
- Mullen, E. Theodore. *The Divine Council in Canaanite and Early Hebrew Literature*. Missoula, MT: Scholars Press, 1980.
- Richardson, M. E. J. *Hammurabi's Laws: Text, Translation and Glossary*. London. New York: T & T Clark International, 2000.
- Ringgren, Helmer. *Word and Wisdom: Studies in the Hypostatization of Divine Qualities and Functions in the Ancient Near East..* Boktryckeri: Lund, 1947.
- Roth, Martha M. "Mesopotamian Legal Traditions and the Laws of Hammurabi," *Chicago–Kent Law Review* 71 No 1 (1995), 17.
- _____. *Law collections from Mesopotamia and Asia Minor*. Atlanta, GA: Scholars Press, 1997.
- Sherwood, Stephen K. *Leviticus, Numbers, Deuteronomy: Beit Olam Studies in Hebrew Narrative & Poetry*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2000), 29–44.
- Sparks, Kenton L. *Ancient Texts for the Study of the Hebrew Bible: A Guide to the Background Literature*. Peabody, MA: Hendrickson Pub. 2005.
- Toews, Wesley I., "Divine Assembly," *ABD*, II:214–217.
- Van de Mieroop, Marc. *King Hammurabi of Babylon: a Biography*. Malden, MA: Blackwell Pub., 2005.
- Walton, John. *Ancient Near Eastern thought and the Old Testament: Introducing the Conceptual world of the Hebrew Bible*. Baker Academic, 2006.
- Wells, Bruce. "Law and Practice" in *A Companion to the Ancient Near East*. Ed. Daniel C. Snell: *Blackwell Companions to the Ancient*

World. Malden, 1988, 209-211.

Whybray, Ronald N. *Wisdom in Proverbs, the Concept of Wisdom in Proverbs 1-9* SBT, Naverville, ILL, 1965. (참고문헌은 일부 수록됨)

검색어

지혜

창조협력자

신위(神位)/ 신격체

함무라비 법

천상회의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ws of Hammurabi and Proverbs 8 based on the Divine Council

Jong-Keun Lee, Th.D.

Professor Emeritus

Department of Theology

Sahmyook University

This study deals with the relationship of divine councils between the Laws of Hammurabi and Proverbs 8, and with its hermeneutic implications. Wisdom is couched in the mundanities and conducts of

www.kci.go.kr

함무라비 법과 잠언 8장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 천상회의를 중심으로 | 이종근 231

people, but her authority is compared to Yahweh's creation and she has the highest authority as the fear of God. Wisdom is edited as a literary purpose to integrate the various features of ancient Israelite life and religious vision. Furthermore, she expands to a typological eternal truth through the spiritual relationship with God.

The divine councils in the Laws of Hammurabi and Proverbs 8 are parts of common features in the ancient Near East. They operate as absolute consultative bodies based on justice and righteousness, revealing noble features of divinity. The divine council in Proverbs 8 is developed independently from that in the laws of Hammurabi, rather than influenced by some special forms of literature like the laws of Hammurabi. The divine council in Proverbs 8 is Israelite cultural heritage of faith. Wisdom is personified and depicted as a hypostasis, the co-creator. It seems possible to interpret the co-creator as Jesus Christ, Logos and Sophia in the background of hermeneutic implications, though not clearly mentioned in Proverbs.

The co-creator illuminates joy and gladness, and intercession with God the creator, who is the ideal of all living beings. The divine council of Proverbs is based on concern, care, sacrifice, and love for humanity. Communication and mutual help of the co-creator seem to be one of the best ways toward democracy and governance overcoming confusion and conflicts in this contemporary world. The model of the co-creator in primeval time in creating the heavens and the earth, delight and dynamism, mission and vision as an intermediary for humanity, is the blueprint of the human spirit, relationship and attitude to the end of time.

Keywords

wisdom

co-creator

hypostasis

Laws of Hammurabi

divine council

- 투고일: 2017년 1월 1일
- 심사일: 2017년 2월 2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2월 6일